소액의 기부로 행복이 쌓인다**

올겨울, 모두가 따뜻하게
소복소복 기부하세요

희망2022 나눔캠페인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홈페이지 www.chest.or.kr
◀ 홈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ISSUE 178 2022 FEBRUARY

사랑의열매

2022
02

23개의 작은 실천이 모여 만든 행복한 기적

의왕 왕송호수 착한가게
23개소 가입으로
착한가게·나눔거리 선포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소액의 기부로 행복이 쌓인다**

올겨울, 모두가 따뜻하게
소복소복 기부하세요

희망2022 나눔캠페인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홈페이지 www.chest.or.kr
◀ 홈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ISSUE 178 2022 FEBRUARY

사랑의열매

2022
02

이웃의 희망을 잇고 행복을 지어요!

제8회 사랑의열매
대상 '행복장' 수상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소액의 기부로
행복이 쌓인다*

올겨울, 모두가 따뜻하게
소복소복 기부하세요

희망2022 나눔캠페인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홈페이지 www.chest.or.kr
◀홈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ISSUE 178 2022 FEBRUARY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2022
02

지역을 향한 황인규 회장의 따뜻한 마음

대전 대표 기업
CNCITY에너지의
다채로운 나눔 이야기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소액의 기부로
행복이 쌓인다

올겨울, 모두가 따뜻하게
소복소복 기부하세요

희망2022 나눔캠페인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홈페이지 www.chest.or.kr
◀홈 바로가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ISSUE 178 2022 FEBRUARY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2022
02

나눔으로 가슴 따뜻한 인술을 펼치다

2,000여 명의 회원이
모은 기부금으로 20년째
의료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전남대학교병원 학마을봉사회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나눔태그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always_yarn_ruru

어제 주민센터에 들렀는데 사랑의열매를 본 하늘이가 “이게 뭐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주니 “저도 좋은 일 할래요” 하면서 선뜻 본인이 모아둔 코 묻은 돈을 꺼내어 모금함에 넣고는 예쁘고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덩달아 옆에 있던 하루는 엄마 찬스로 같이 동참했지요. 한 해 마지막 날 좋은 일 하고 너무 흐뭇하고 뿌듯해 온종일 튀어 오르는 하늘이의 텐션을 조절하기 어려웠답니다.
새해에는 소소하게나마 더 나누는 행복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0대가 된 하늘이의 성장이 기대되는 새해입니다.

k_ara7977

거리 두기로 인해 더 춥게 느껴지는 겨울.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겐 더 힘든 계절인데요. #사랑의열매로 온기를 나누는 분들을 보니 마음만은 따뜻해집니다~ 제페토에도 #사랑의열매체리랜드가 오픈해서 방문했어요. 사랑의온도탑에서 인증샷도 찍고,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체리’도 알게 되고, 곳곳에 포토존과 볼풀장·아이스링크가 있어서 재미있게 즐겼답니다. 1월 31일까지 희망2022나눔캠페인을 진행하며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체리와 함께 VR 모금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봐야겠어요! #기부좋은날체리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기부 #나눔캠페인 #나눔 #모금

belong_to_3ummer

동전이 생길 때마다 채워 넣고 있는 사랑의 저금통.
주하의 첫 기부.
#고사리손으로 #기부동참 #사랑의열매 #사랑의저금통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로 나아갑니다.

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낡은 곳을 보수하거나 쪽방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왔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always_yarn_ruru

어제 주민센터에 들렀는데 사랑의열매를
본 하늘이가 “이게 뭐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주니
“저도 좋은 일 할래요” 하면서 선뜻 본인이
모아둔 코 묻은 돈을 꺼내어 모금함에
넣고는 예쁘고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덩달아 옆에 있던 하루는 엄마
찬스로 같이 동참했지요. 한 해 마지막
날 좋은 일 하고 너무 흐뭇하고 뿌듯해
온종일 튀어 오르는 하늘이의 텐션을
조절하기 어려웠답니다.
새해에는 소소하게나마 더 나누는 행복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0대가 된 하늘이의 성장이
기대되는 새해입니다.

k_ara7977

거리 두기로 인해 더 춥게 느껴지는 겨울.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겐 더 힘든
계절인데요, #사랑의열매로 온기를
나누는 분들을 보니 마음만은
따뜻해집니다~ 제페토에도
#사랑의열매체리랜드가 오픈해서
방문했어요. 사랑의온도탑에서
인증샷도 찍고,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체리’도 알게 되고, 곳곳에 포토
존과 볼풀장·아이스링크가 있어서
재미있게 즐겼답니다. 1월 31일까지
희망2022나눔캠페인을 진행하며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체리와 함께
VR 모금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봐야겠어요! #기부좋은날체리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기부
#나눔캠페인 #나눔 #모금

belong_to_3ummer

동전이 생길 때마다 채워 넣고 있는
사랑의 저금통.
주하의 첫 기부.
#고사리손으로 #기부동참 #사랑의열매
#사랑의저금통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허재

‘농구 대통령’ 허재 님은 지난해 11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나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아들 허웅·허훈 님도 나눔에 동참해
착한가정 4000호로 가입했습니다.

사랑의열매

vol. 178 2022. 02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의왕 왕송호수 착한가게에 가입한
카페인더뷰 이나라 대표, 부연편백찜 샤브샤브
김기식 대표, 손커피연구소 왕송호수점 남경곤 대표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2월 / 통권 178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MIX
From responsible sources
FSC® C005413
www.fsc.org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04
희망2022나눔캠페인 스토리 ❸
1%의 나눔으로 만드는 1℃ 더 따뜻한 세상
- 나눔으로 함께한 특별한 첫출발
- 사랑의열매 전국 희망나눔 현장
- 받은 사랑을 나누는 스포츠 선수
- 이색 기부, 특별한 나눔
- 소액 기부로 '소복소복' 쌓이는 행복
- 조용히 사랑을 전한 익명의 기부자

12
따뜻한 겨울나기
한파를 녹이는 사랑의열매 온기

14
크라우드펀딩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

15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기·경기북부·강원·서울·인천

26
모두의 나눔
함께 돌보고, 함께 해결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로 나아갑니다

32
내 인생의 한마디
울산 아너 1호 경북타일 우재혁 대표

36
착한 열매슐랭
착한가게 서울 맛집 탐방

40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첫 월급으로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동참한 (주)일신화이바 신입 사원들

42
착한기업
나눔에서 시작된 경영 혁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44
세상에 이런 열매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사랑의열매도 힘을 보탭니다

46
전국 지회 뉴스

56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8
FUN한 나눔 ❶ ❷

60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78 2022. 02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오른쪽부터)기획조정실 김주연 주임,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
기획조정실 김영공 계장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2월 / 통권 178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MIX
From responsible sources
FSC® C005413
www.fsc.org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04
희망2022나눔캠페인 스토리 ❸
1%의 나눔으로 만드는 1℃ 더 따뜻한 세상
- 나눔으로 함께한 특별한 첫출발
- 사랑의열매 전국 희망나눔 현장
- 받은 사랑을 나누는 스포츠 선수
- 이색 기부, 특별한 나눔
- 소액 기부로 '소복소복' 쌓이는 행복
- 조용히 사랑을 전한 익명의 기부자

12
따뜻한 겨울나기
한파를 녹이는 사랑의열매 온기

14
크라우드펀딩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

15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북·경남·부산·대구·울산

26
모두의 나눔
함께 돌보고, 함께 해결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로 나아갑니다

32
내 인생의 한마디
울산 아너 1호 경북타일 우재혁 대표

36
착한 열매슐랭
착한가게 서울 맛집 탐방

40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첫 월급으로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동참한 (주)일신화이바 신입 사원들

42
착한기업
나눔에서 시작된 경영 혁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44
세상에 이런 열매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사랑의열매도 힘을 보탭니다

46
전국 지회 뉴스

56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8
FUN한 나눔 ❶ ❷

60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78 2022. 02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대전 사랑의열매 69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CNCITY에너지 황인규 회장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2월 / 통권 178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MIX
From responsible sources
FSC® C005413
www.fsc.org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04
희망2022나눔캠페인 스토리 ❸
1%의 나눔으로 만드는 1℃ 더 따뜻한 세상
- 나눔으로 함께한 특별한 첫출발
- 사랑의열매 전국 희망나눔 현장
- 받은 사랑을 나누는 스포츠 선수
- 이색 기부, 특별한 나눔
- 소액 기부로 '소복소복' 쌓이는 행복
- 조용히 사랑을 전한 익명의 기부자

12
따뜻한 겨울나기
한파를 녹이는 사랑의열매 온기

14
크라우드펀딩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

15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대전·충북·충남·세종

26
모두의 나눔
함께 돌보고, 함께 해결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로 나아갑니다

32
내 인생의 한마디
울산 아너 1호 경북타일 우재혁 대표

36
착한 열매슐랭
착한가게 서울 맛집 탐방

40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첫 월급으로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동참한 (주)일신화이바 신입 사원들

42
착한기업
나눔에서 시작된 경영 혁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44
세상에 이런 열매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사랑의열매도 힘을 보탭니다

46
전국 지회 뉴스

56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8
FUN한 나눔 ❶ ❷

60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78 2022. 02

• 모든 촬영과 인터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이달의 표지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학마을봉사회 부회장
화순전남대병원 간호부 봉영숙 부장, 회장 박창환
소화기내과 교수, 부회장 류현호 응급의학과 교수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2년 2월 / 통권 178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MIX
From responsible sources
FSC® C005413
www.fsc.org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04
희망2022나눔캠페인 스토리 ❸
1%의 나눔으로 만드는 1℃ 더 따뜻한 세상
- 나눔으로 함께한 특별한 첫출발
- 사랑의열매 전국 희망나눔 현장
- 받은 사랑을 나누는 스포츠 선수
- 이색 기부, 특별한 나눔
- 소액 기부로 '소복소복' 쌓이는 행복
- 조용히 사랑을 전한 익명의 기부자

12
따뜻한 겨울나기
한파를 녹이는 사랑의열매 온기

14
크라우드펀딩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

15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광주·전북·전남·제주

26
모두의 나눔
함께 돌보고, 함께 해결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로 나아갑니다

32
내 인생의 한마디
울산 아너 1호 경북타일 우재혁 대표

36
착한 열매슐랭
착한가게 서울 맛집 탐방

40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첫 월급으로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동참한 (주)일신화이바 신입 사원들

42
착한기업
나눔에서 시작된 경영 혁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44
세상에 이런 열매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사랑의열매도 힘을 보탭니다

46
전국 지회 뉴스

56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8
FUN한 나눔 ❶ ❷

60
독자 페이지

1%의 나눔으로 만드는 1℃ 더 따뜻한 세상

전국 곳곳에서 희망2022나눔캠페인(이하 희망나눔캠페인)에 보내온 성원이 뜨겁다. 사랑의온도탑 100℃ 달성을 위해 작지만 큰 사랑이 모이면서 때론 기분 좋은 따뜻함을, 때론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SK텔레콤 T1, 포항스틸러스

임인년 첫 아너가 된 가수 양희은

나눔으로 함께한 특별한 첫출발

2022년 새해 첫 아너 탄생

가수 양희은 어두웠던 시절 많은 이를 위로한 가수 양희은이 이제는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나눔을 전했다. 지난 2020년 12월 5,0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이번 희망나눔캠페인에 6,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로써 양희은은 임인년(壬寅年) 새해 들어 탄생한 첫 번째 아너가 되었다. 그는 "50여 년간 가수로 활동하며 받은 많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가입 소감을 밝혔다.

사랑의열매 전국 희망나눔 현장

2022 서울 초·중·고 학생 나눔캠페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1,316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모금함을 배포해 자율적인 나눔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총 10회째 캠페인에 기부금을 전한 영파여자중학교, 학생회에서 직접 모금 캠페인을 계획하며 기부처까지 결정한 언북초등학교 등 따뜻한 기부가 이어졌다. 조성한 기부금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조식 및 위기 학생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QR코드 나눔릴레이

희망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경북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 가능한 비대면 모금 운동을 진행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기부 신청 페이지로 연결되며, 특히 경북 도내 23개 시군에 부여한 고유 QR코드를 통해 기부자가 원하는 지역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 많은 이가 즐겁고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부 후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기부콜(CALL) 나눔챌린지

세종시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를 올릴 수 있는 기부콜(CALL) 나눔챌린지를 전개했다. 060-700-1103으로 전화를 걸어 2,000원을 기부한 후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방식이다. 비대면 모금이 낯선 노년층의 기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여럿이 함께 기부한 후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는 등 즐겁고 재미있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1 QR코드 나눔릴레이에 나선 경북 사랑의열매 전우헌 회장
2 기부콜 나눔챌린지 인증샷을 찍은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받은 사랑을 나누는 스포츠 선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e스포츠의 신' 페이커 이상혁 선수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 e스포츠 세계 최고의 스타인 SK텔레콤 CS T1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서울 사랑의열매에 5,000만 원을 전달하며 월드클래스다운 선행을 실천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한 데 이어 이번 희망나눔캠페인에도 성금을 전달한 것. 그는 "힘든 시기가 길어지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을 돕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캠페인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1 페이커 이상혁 선수
(사진 출처: SK텔레콤 T1)
2 포항 스틸러스의 임상협 선수
3 축구 국가 대표 황인범 선수

'기부의 정석' 축구 국가 대표 황인범 선수

대한민국 축구 국가 대표 선수이자 현재 러시아에서 활약 중인 황인범(FC 루빈 카잔) 선수가 대전 사랑의열매 최연소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2016년 착한가정으로 정기 기부를 시작한 그는 2020년에 관내 저소득 이웃을 위해 5,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작은 응원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황인범 선수의 메시지에 따라 이번에 기탁받은 3,000만 원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체육특기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영광을 나눔으로, 임상협 선수

하나원큐 K리그1 2021 대상 시상식에서 K리그1 베스트11 미드필드를 수상하며 최고의 한 해를 마무리한 포항 스틸러스의 임상협 선수. 그는 지난 12월 30일 사랑의열매에 "축구 선수로 많은 것을 받아왔기에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을 함께 나눌 때라 생각합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뜻깊은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감과 함께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임상협 선수가 보낸 따뜻한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경제적 빈곤 퇴치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서울 사랑의열매 김진곤 사무처장, 래퍼 마미손, 일러스트레이터 갈리에라가 함께한 기부금 전달식

이색 기부, 특별한 나눔

래퍼 마미손과 갈리에라 작가, NFT 아트 판매 금액 기부

신원 미상의 아이콘 래퍼 마미손이 특별한 나눔을 실천했다. 분홍색 복면을 쓴 채 유쾌하면서도 파격적 행보를 이어가는 마미손이 일러스트레이터 갈리에라 작가와 협업해 마미손 캐릭터가 그려진 'TGOA-123 마미손'을 NFT 아트로 선보였다. 래퍼 마미손과 갈리에라 작가는 'TGOA-123 마미손' 작품 판매 금액 1,000만 원을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전달식에서 래퍼 마미손은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전달해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께 받은 사랑은 좋은 음악과 나눔으로 보답하겠다"고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래퍼 마미손과 갈리에라 작가가 협업한
'TGOA-123 마미손' NFT 아트

소액 기부로 '소복소복' 쌓이는 행복

게임기를 사려고 모은 돈을 경찰서에 놓고 간 형제

지난해 12월 30일 충남 공주경찰서 금학지구대 현관에 돼지 저금통 3개와 편지 두 통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이 발견됐다. 삐뚤빼뚤 쓴 손 편지에는 "게임기를 사려고 모은 돈이지만,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고, 돼지 저금통에는 100만 8,430원의 동전과 지폐가 들어 있었다. 경찰관은 수소문한 끝에 지구대를 깜짝 방문한 주인공이 오경민·오누리 형제임을 알아냈다. 형제의 선행에 감동한 금학지구대 직원들은 성금을 보태 돼지 저금통과 함께 충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1

2

유학 자금을 기부한 윤이삭 주무관

의정부시 안전교통건설국 도시철도과 윤이삭 주무관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고,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2013년 스무 살의 나이로 공직에 임용된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2020년 해외 유학을 계획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유학 자금을 성금으로 기탁한 것. 나눔리더 가입식에서 윤 주무관은 "몇 년 전 탈북민 모자가 아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힘든 상황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유학 자금을 쓰는 편이 뜻깊을 것 같아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1 오경민·오누리 형제가 공주경찰서 금학지구대에 몰래 놓고 간 돼지 저금통
2 유학 자금을 기부한 윤이삭 주무관(가운데)

지역사회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정현전기물류

2017년 서부산유통지구에서 첫 번째로 착한가게에 가입하며 부산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은 (주)정현전기물류(대표 오상훈)는 지금까지 다양한 나눔에 앞장서오고 있다. 착한가게, 착한일터 가입으로 현재까지 총 135건 2,183만 6,300원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임직원 나눔리더 27건 350만 원 기부, 임직원 개별 착한가정 가입, 특별 기부 등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오상훈 대표는 "나눔명문기업과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것이 꿈"이라며 어린 아들과 함께 저금통 기부를 하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병 모아 이웃사랑 실천한 착한가게 진도낚시점

지난해 12월 10일 진도낚시점 김원식 대표가 지난 1년간 공병을 모아 마련한 수익금 전액인 114만 6,780원을 전남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진도낚시점은 2017년 착한가게에 가입해 지금까지 꾸준히 정기기부를 이어온 것은 물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째 공병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성금을 전달하며 "공병을 모으면서 부정적 시선에 힘들 때도 있지만, 저의 작은 실천으로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힘이 되면 더없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3

4

7년 넘게 모아온 저금통 기부한 자매

충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1월 11일 서천경찰서를 통해 커다란 저금통을 전달받았다. 이는 이틀 전 안서연·안서진 자매가 서천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기탁한 것으로, 저금통에는 현금 165만 9,350원이 들어 있었다. 두 자매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7년 넘게 온 가족이 함께 모은 것"이라며 "설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는 후문이다.

3 기부금 전달식에서 전남 사랑의열매 김동극 사무처장(왼쪽)과 진도낚시점 김원식 대표(오른쪽)
4 유치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7년간 모은 저금통을 기부한 안서연·안서진 자매

조용히 사랑을 전한 익명의 기부자

2017년부터 희망을 전하는 경남의 나눔천사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사랑의열매에 나눔천사가 손 편지와 기부금을 놓고 갔다. "1년간 부은 적금을 기부금으로 보냅니다.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라며 "내년 성탄절까지 모두 행복하십시오. 내년에 또 연락하겠습니다"라는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이른 아침 발신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후였다. 2017년부터 매년 연말에 성금을 전달한 그는 지난해 7월 우리경남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성금 300만 원에 이어 이번 희망나눔캠페인에 5,133만 7,030원을 기부하며 한 해 두 번 나눔을 실천했다. 이로써 누적 기부금은 약 4억 8,300만 원에 달한다.

폐지 팔아 모은 돈을 전달한 어르신

구리시 수택2동행정복지센터에 자신을 '김씨'라고만 밝힌 한 어르신이 5만 원권 200장이 든 검은 봉지를 전달했다. 그는 "1년간 폐지를 팔아 모은 이 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얘기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1

2

메신저 피싱 피해 보상금을 기부한 대구 기부자

지난해 11월 16일 대구 사랑의열매는 퀵서비스로 기부금을 보내겠다는 익명 기부자의 전화를 받았다. 이윽고 도착한 상자 안에는 170만 원과 기부 사연이 담긴 쪽지가 있었다. "메신저 피싱을 당했는데, 다행히 그중 일부를 보상받아서 착한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성금은 대구의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월동 난방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반찬통에 담긴 어느 가족의 사랑

남양주시 평내동주민센터에 주민이라고 밝힌 한 기부자가 가족들이 1년간 모은 것이라며 동전 20만 8,280원이 담긴 플라스틱 반찬통을 건네고 사라졌다. 함께 들어 있는 메모에는 "좋은 일에 써주세요. 적은 금액이라 부끄럽네요"라고 적혀 있었다. 기부금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지정 기탁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용할 예정이다.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민 함양군 익명 기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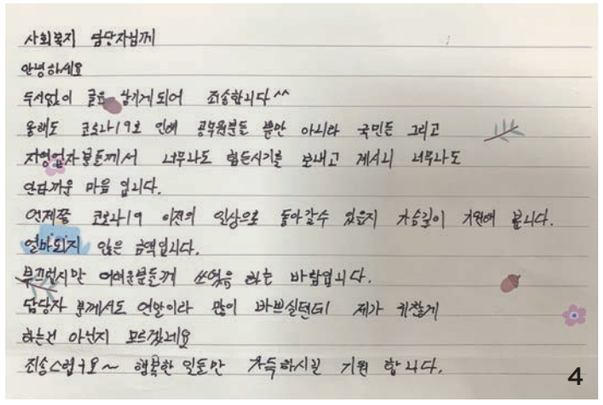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22일 이른 아침 익명의 기부자가 남몰래 함양읍행정복지센터에 500만 원이 든 봉투와 기부 의사를 밝힌 편지를 두고 홀연히 떠났다. 자필로 적은 편지에는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며, 힘든 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해달라는 말과 함께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기부금은 경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1 매년 연말에 찾아오는 경남 나눔천사의 기부금
2 대구 기부자가 기부한 메신저 피싱 피해 보상금
3 22년 동안 나눔을 전한 전주시 얼굴 없는 천사
4 돈 봉투와 함께 자필로 적은 편지를 놓고 간 함양군 기부자

22년간 변함없이 선행을 실천한 전주시 얼굴 없는 천사

지난해 12월 28일 노송동주민센터 근처 오르막길에 주차된 트럭에 상자를 두었다는 40대 중년 남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주시 '얼굴 없는 천사'였다. 그곳에는 총 7,009만 4,960원의 성금이 놓여 있었다. 그는 2000년부터 2021년 연말까지 22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노송동주민센터에 성금을 전해왔다. 그가 23차례 놓고 간 성금은 모두 8억 872만 8,100원으로 공익적 자선사업을 통해 전주 시민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4

한파를 녹이는 사랑의열매 온기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몸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강력한 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파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 특히 취약 계층에는 가혹한 계절이다. 그래서 사랑의열매는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석구석 나눔 온기를 전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온정이 가득한 넉넉한 설맞이 지원

1

2

1 매년 사랑의 쌀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김철아(왼쪽) 씨
2 대전 사랑의열매 정태희 회장(왼쪽)과 허태정 대전시장이 함께한 설 명절 지원 사업 전달식

대전 저소득 주민에게 즐거운 설 선물

지난 1월 12일 대전 사랑의열매는 설 명절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대전시에 전달했다. 해당 지원금은 대전 내 저소득 가정과 소년소녀 가장 등 3,432가구에 1억 3,500만 원을, 쪽방상담소 및 이주외국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기관 2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하며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영동군 은편리 주민의 사랑의 쌀 기부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은편리 주민인 김철아 씨가 100만 원 상당의 쌀 10kg 30포를 추풍령면 사무소에 기부했다. 매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 기부를 진행하는 그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올해도 넉넉한 사랑을 베풀었다. 그가 기부한 쌀은 충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동장군도 물리칠 따끈따끈한 사랑

3

4

3 전기요는 쪽방촌 거주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4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한 후 어르신께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모습

쪽방촌 주민에게 전기요 선물한 카카오메이커스

지난해 연말, 주문 제작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와 사랑의열매가 손잡고 ‘춘식이와 함께해열매’ 기부 배지를 선보였다. 기부 배지는 출시하자마자 단기간에 품절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이 특별한 이유는 배지 판매 수익금 전액이 모두 사회에 환원되는 상생 캠페인이기 때문. 지난 1월 카카오메이커스와 사랑의열매는 해당 수익금 전액으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 거주 이웃들을 위해 전기요를 구매했다. 총 874개의 전기요는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를 포함한 다섯 곳의 쪽방상담소에 전달했다.

친환경 보일러로 추위 걱정 끝

포스코가 저소득 취약 계층의 보일러를 교체하는 지원 사업에 나섰다. 사랑의열매가 배분하고 포항시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 광양시는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이 대상자를 선정해 포항시와 광양시의 에너지 취약 계층 각 25가정씩 총 50가정을 지원했다. 이번에 교체된 보일러는 포스코 스테인리스를 적용한 친환경 보일러여서 취약 계층의 난방비를 절감해주는 것은 물론, 오염 물질 배출 저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1인 가구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간단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펀딩을 시작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1인 가구 어르신께 영양 가득한 죽과 밝은 안부 인사를 전하세요

모금 기간 2022년 1월 20일~3월 20일
목표 금액 120만 원
모금 사용 해물죽, 두유 구입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 캠페인 → 크라우드펀딩

O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

"똑똑똑, 어르신 식사 왔어요"

용산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어르신 중 결식 위험에 처한 분이 매우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챙겨 드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밥 냄새도, 사람 냄새도 그리운 어르신들에게 식사하기 편리하고 영양 가득한 죽을 배달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도 되어드리며 살뜰하게 보살피는 역할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의 든든하고 행복한 한 끼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세요.

2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기 경기북부 강원 서울 인천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착한가게·나눔거리 선포식 모습

작은 실천이 만든 행복한 기적

의왕 왕송호수 착한거리 & 착한가게

경기 의왕시의 왕송호수는 시민이 많이 찾는 대표적 생태 호수로 꼽힌다. 지난 12월 이곳이 착한가게·나눔거리(이하 착한거리)로 선포되면서 나눔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정성을 모아 이웃사랑을 실천한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 왕송호수를 찾았다.

글 이선희 **사진** 김기남, 경기사랑의열매

따뜻한 마음이 모여 뜨거운 나눔으로

의왕시의 착한가게 가입 열풍은 2020년 백운호수에서 시작됐다. 백운호수에 자리한 가게들의 단체 가입이 늘면서 왕송호수 일원까지 확대된 것. 한번 번진 나눔 열기는 어느 곳에도 견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2021년 10월, 왕송호수 16개소의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을 시작으로 12월 20일 6개소가 신규 가입하며 마침내 착한거리 선포식이 열렸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많은 이가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것이라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널리 퍼지는 선한 영향력

착한거리 선포식과 함께 왕송호수 공원에는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을 상징하는 하트존 벤치 조형물이 설치됐다. 또한 지난해 10월에 착한가게에 함께 가입한 성창산업이 이 조형물 제작을 맡으며 한층 의미를 더했다. 착한거리 선포식에 감명을 받은 카페몽블이 신규 가입하며 왕송호수의 착한가게는 총 23개소가 되었다. 이렇게 매달 모인 기부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며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확충해나가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착한거리가 된 왕송호수 착한가게들의 나눔 열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 앞으로 어떤 나눔 저력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카페맵(CAFÉ MAB)의 착한가게 가입식 모습

왕송호수 착한거리 조성에 도움을 주신 '착한 사람들'

왕송호수 초평상공인회
김창해 회장

왕송호수 초평상공인회
노혜영 총무

성창산업
전진규 대표

카페(베이커리 · 디저트)		
(주)리코하우스	김연구 대표	070-8837-5000
손커피연구소 왕송호수점	남경곤 대표	031-461-9777
에스타시온	유미선 대표	031-461-2525
카페맵 (CAFÉ MAB)	김수환 대표	031-462-4004
카페몽블	이나현 대표	070-4225-5700
카페소풍	정하경 대표	031-385-6114
카페인더뷰	이나라 대표	050-7132-64161
커피트레인	박재욱 대표	031-462-1511
37.5 브런치카페	강규리 대표	031-461-3705
M130	오세민 대표	031-461-1130
식당 · 분식점		
가온길	조수환 대표	031-461-3311
능이야	김은정 대표	031-462-3625
부연편백찜 샤브샤브	김기식 대표	031-455-9300
올바른개성손만두 왕송호수점	이현숙 대표	031-461-3872
우성토종한우	김학성 대표	031-461-8987
육전국밥	윤선화 대표	031-462-4628
이대가장수촌	이성희 대표	031-462-4885
일품명가	신현수 대표	031-461-3042
조가네갑오징어 왕송호수점	이혜경 대표	031-462-5353
초평골	김화자 대표	031-461-0702
파라디조	이학주 대표	031-462-3366
제조업		
성창산업	전진규 대표	031-461-2236
(주)화정하우징	노혜영 대표	031-457-6700

십시일반으로 나눔 참여한 구리시청 공무원 107명

“함께 나눔온도를 올렸습니다!”

온도탑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구리시청 공무원들이 뭉쳤다. 나눔의 아름다운 행렬이다.

글 강은진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구리 시민들은 나눔온도를 높이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사진은 구리시 사랑의온도탑

구리시의 기부 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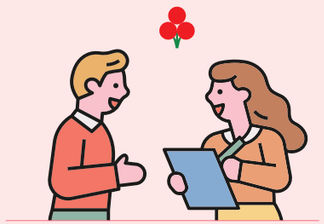
구리시의 따뜻한 나눔 행렬이 화제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하는 연말 집중 모금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구리시청 공무원 107명이 참여한 것. 구리시청 공무원들은 나눔온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았다. 그야말로 십시일반의 미덕을 보여준 셈이다. 그뿐만 아니다. 구리시는 캠페인 기간 동안 구리시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구리광장에 설치한 사랑의열매 미니 온도탑의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코로나19 시대의 맞춤형 비대면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또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익명의 노인이 “소외된 이웃에게 지원해달라”며 폐지를 주워 모은 돈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구리시청 공무원을 비롯해 시민들까지 기부 행렬에 동참해 훈훈함을 더했다. 구리시청 복지행정과 전혜승 과장은 “희망2022나눔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강주현 본부장은 “소중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외국인 노동자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 가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외국인 근로자 지원의 초석 마련돼”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의 외국인 노동자 가구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글 강은진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예산 추가 편성 등 지원 돋보여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5층 대강당에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 공석원 지청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대표,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김성수 대표,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김경윤 대표,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강주현 본부장,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차명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 및 그 가족을 돕는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가구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했다. 특히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1월에도 외국인 노동자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의 수요가 높아 올해 하반기에는 1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가구당 지원액도 늘리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날 성과 보고회에 강연자로 참석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대표는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이중고를 겪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됐다”고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강주현 본부장은 “각종 차별과 어려움에 놓여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기념 촬영 중인 코로나19 위기 외국인 노동자 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이사, 희망2022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파”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원랜드! 이번엔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글 강은진 사진 강원 사랑의열매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사회 공헌 성금을 기부한 강원랜드. 사진은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왼쪽)과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이사

캠페인 통해 이웃사랑 실천

지난해 12월 27일,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참여하며 성금 3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이사,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삼걸 대표이사는 친필로 “나눔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우리 모두 사랑을 담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봅시다”라는 나눔 메시지를 작성해 강원도 취약 계층의 울타리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 중 1억 5,000만 원은 강원도 에너지 빈곤층 800가구에 연탄 18만 장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며, 도내 저소득층 약 200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성금 5,000만 원은 장애인,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 돌봄에 사용한다.

지역사회 위해 앞장서온 강원랜드

전달식에 참석한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이사는 “추운 연말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하며,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앞으로도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은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참여해준 강원랜드는 강원도 지역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고마운 기업”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강원 사랑의열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성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부터 꾸준히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해온 강원랜드는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이 150억여 원에 달한다. ‘사람을 잇고, 가치를 더한다’는 비전 아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직원 성금 기부, 폐광 지역 학생 태블릿 PC를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앞장서왔다.

1 성금 전달식에서 나눔 메시지를 직접 작성 중인 이삼걸 대표이사
2 강원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이삼걸 대표이사의 나눔 메시지는 ‘나눔으로 세상을 따뜻하게’였다.

“추운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강원랜드의 온정을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지역 복지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이사

미혼모 지원 위해 성금 전달한 K-뷰티 리더 이사배 대표

“응원의 마음을 담아봅니다”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금을 전달한 이사배아트. 마음까지 아름다워지는 소식이다.

글 강은진 **사진** 서울사랑의열매

미혼모 가정 응원하고파

이사배아트가 서울 사랑의열매에 성금 2,250만 원을 전달했다. 이사배아트는 K-뷰티 리더로 손꼽히는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 대표가 운영하는 뷰티 영상 전문 업체다. 이사배 대표는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사랑의열매를 직접 방문해 성금을 건넸다. 이사배아트의 기부금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응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사배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더 힘든 분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가정을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혼모 가정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따뜻한 나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 사랑의열매 김진곤 사무처장은 “미혼모 가정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나눔에 함께해 주신 이사배아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고 있는 미혼모를 위해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왼쪽부터) 서울 사랑의열매 방선진 사회공헌팀장, 김진곤 사무처장, 이사배아트 대표 이사배, 이사배아트 관계자가 기부금 전달식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희망2022나눔캠페인 응원 나선 서울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여러분의 사랑을 모아주세요!”

서울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들이 힘을 모았다. 캠페인 성공을 위해 응원 메시지를 전해온 것.

글 강은진 **사진** 서울사랑의열매

나눔 위한 한목소리

희망2022나눔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란 슬로건 아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492억 원을 목표로 따뜻한 대장정을 이어왔다. 무엇보다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온 스타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방송인 김성주, 방송인 현영, 배우 김나운과 다니엘 헤니, 채수빈 등은 영상을 통해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모두 서울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스타들이다. 또 지난해 12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방송인 붐도 응원 메시지 릴레이에 참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나눔을 위해 힘을 보탠 홍보대사들의 응원은 많은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교육 격차 완화 지원 등 4대 나눔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참여가 사랑의 온도를 높입니다!”

– 배우 다니엘 헤니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배우 채수빈

“나와 이웃, 서로가 건강해질 수 있는 나눔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방송인 김성주

“여러분의 사랑이 모이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됩니다!” – MC 붐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이웃들 위해 연탄 지원 나서

“따뜻한 겨울을 선물합니다!”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 연탄을 기부했다. 추운 겨울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소식을 만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인천 사랑의열매

사랑의 연탄

인천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연탄을 기부했다. 이름하여 사랑의 연탄! 클럽 회원들은 겨울에 꼭 필요한 연탄 기부가 저조하다는 소식을 듣고 총 6,520장(500만 원 상당) 규모의 연탄을 지원했다. 연탄 전달식에는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장진호 회장, 인천 여성 아너 소사이어티 임남례 회장,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주영범 재무이사, 인천 사랑의열매 이정윤 사무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 사랑의열매는 인천연탄은행을 통해 가구당 약 300장씩 총 20여 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장진호 회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인천 사랑의열매 조상범 회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들은 매년 상·하반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보라매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을 위한 특식 지원 봉사와 함께 성금과 선물을 전달하고, 8월에는 남동구 노인복지관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300인분을 전달하기도 했다.

연탄나눔 봉사에 참여한 (왼쪽부터)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주영범 재무이사, 인천 여성 아너 소사이어티 임남례 회장, 인천연탄은행 정성훈 대표,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장진호 회장, 인천 사랑의열매 이정윤 사무처장

인천 사랑의열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희망돌봄’ 업무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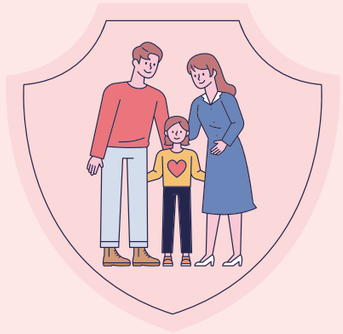
“다시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를 위해 인천 사랑의열매가 나섰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희망돌봄 사업이다.

글 강은진 **사진** 인천 사랑의열매

안전한 일상 복귀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인천 사랑의열매는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희망돌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조병호 사무처장, 인천 사랑의열매 이정윤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희망돌봄’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범죄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1월부터 모금을 시작했으며 목표액은 1억 원이다. 모인 성금은 살인, 강도, 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 폭력, 방화 등 범죄 피해자 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심리 치료, 생계비·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조병호 사무처장은 “인천 관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 사랑의열매와 연합 모금 협약을 맺게 돼 정말 뜻깊다”면서,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자리를 함께한 인천 사랑의열매 이정윤 사무처장은 “인천 사랑의열매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모금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조병호 사무처장, 인천 사랑의열매 이정윤 사무처장

2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제8회 사랑의열매 대상 '행복장' 수상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우리 이웃의 희망을 잇고, 행복을 짓습니다"

도민을 위한 공익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기업! 나눔명문기업과 착한일터 가입, 자체 사회 공헌 브랜드 개발 등 사회 공헌 활동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경상북도개발공사다.

글 강은진 **사진** 서범세, 경북사랑의열매

도민을 위한 공익가치가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도민이 최우선 가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공기업이 있다. 도민을 위한 공익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경북개발공사)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시작해 청소년 장학금 및 영·유아 보육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보수, 연탄 배달 봉사 활동 및 난방비 지원 등 많은 복지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한 누적 금액만 25억여 원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나눔명문기업 골드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021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로 착한일터에 가입하기도 했다. 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북개발공사의 공로는 지난해 '제8회 사랑의열매 대상'에서 행복장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경북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은 "사회 공헌 활동과 관련한 많은 상을 받았지만 사랑의열매 행복장이 가장 뜻깊었다"면서, "우리를 이만큼 성장시켜주신 도민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한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경북개발공사는 도민의 신뢰와 사랑으로 성장한 만큼 도민들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따뜻한 활동은 저희의 자랑스러운 의무입니다."

–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이웃의 든든한 사다리 될 터

도민을 위한 경북개발공사의 나눔 활동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자체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브랜드화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GBDC 사다리'가 바로 그것. 경북도민들의 든든한 사다리가 되고자 한 의미를 담았다. 특히 경북개발공사는 GBDC 사다리를 통해 경북 사랑의열매는 물론,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노인, 여성, 아동·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사랑의열매〉 2월호 표지로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경북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의 기반은 도민의 신뢰와 사랑"이라고 설명하며, "공사가 이만큼 성장하도록 받은 도민의 사랑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따뜻한 활동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편 1997년 설립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도시·택지 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건축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균형 개발과 도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경상북도 대표 지방공기업이다.

나눔명문기업, 착한일터 가입 등 경북 사랑의열매와 함께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경북개발공사. 사진은 착한일터 가입 모습

부모와 형에 이어 아우도 기부

경남 첫 패밀리 아너의 특별한 나눔 대물림

경남 창녕군과 밀양시에 위치한 종합 쇼핑몰 '아이마트'. 이곳은 지역 쇼핑몰업계의 강자이자 나눔명문가로 통한다. 전필배·김귀주 부부에 이어 큰아들 전종성 씨, 그리고 얼마 전에는 둘째 아들 전종명 씨까지 아너 소사이어티(이하 아너)에 가입하며 경남의 첫 패밀리 아너가 되었다.

글 이선희 **사진** 경남사랑의열매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2014년 부부 아너로 함께 가입한 김귀주·전필배 아이마트 공동대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

종합 쇼핑몰 아이마트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소비 시설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 주민에게 중요한 곳 중 하나다.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먼 곳까지 가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것은 물론, 다양한 상품을 구비해 선택의 폭도 넓다. 쇼핑몰에 들어서기만 해도 보기 좋게 진열된 많은 제품, 구석구석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관리한 매장 등 이곳을 운영하는 전필배·김귀주 공동대표의 부지런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땀 흘려 번 돈을 모아 2014년 경남 사랑의열매 아너에 함께 가입하며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당시 부부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싶었다"며 가입 이유를 밝혔다. 그런 바람이 통한 것일까? 4년 뒤인 2018년 아들 전종성 씨가 경남 111번째 아너 회원이 되며 경남 첫 패밀리 아너의 탄생을 알렸다.

나눔의 기쁨을 알려준다는 것

전종성 씨는 가입 당시 "기부 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음을 밝혔다. 그리고 3년 뒤인 2021년 12월 전필배·김귀주 부부의 둘째 아들 전종명 씨도 경남 140번째 아너 회원에 이름을 올리며 부모님과 형의 뒤를 이었다. 평소에도 크고 작은 선행을 실천해온 전종명 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나눔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가족과 논의한 끝에 아너 가입을 결심한 것.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아이마트를 운영하는 부모님이 눈에 밟히던 두 아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부모님 곁에 남았다. 형제는 부모님을 도와 창녕군과 밀양시에 직영점과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단순히 일뿐 아니라, 남한테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나눔 철학도 배웠다고 입 모아 말했다. 또한 형제는 자신의 아너 가입식에 아이들도 함께하며 나누는 기쁨을 보여주고, 나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다. 자신의 부모님이 그랬듯이 말이다. 2대로 이어진 나눔 정신이 언젠가 대물림되어 3대로 이어지리라 기대되는 이유다.

1 둘째 아들 전종명 씨(오른쪽)의 아너 가입식
2 2018년 경남 111번째 아너 회원이 된 큰아들 전종성 씨(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웃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 김귀주 대표의 나눔 메시지

"작은 관심이 때로는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필배 대표의 나눔 메시지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선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들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선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한파도 녹이는 따뜻한 이웃사랑을 배달합니다”

지난 연말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하 부산 아너 클럽)은 동구 범일동 매축지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진행했다. 까만 연탄재를 뒤집어쓰고도 연신 웃음이 터지는 등 훈훈했던 그날의 현장을 공개한다.

글 이선희 **사진** 부산 사랑의열매

“우리 아너 회원들은 나눔과 봉사에 남다른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눔과 봉사에 참여해주신 아너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정성우 회장

겨울을 녹여줄 ‘까만’ 온정 배달

부산 사랑의열매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부산 아너 클럽은 기부뿐만 아니라 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2012년부터는 연말마다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으로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나르는 봉사를 해왔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안타깝게도 잠시 멈췄다. 지난해 12월 22일 근 1년 만에 재개한 연탄 배달 봉사 활동에 부산 아너 클럽 정성우 회장을 비롯해 11명의 회원은 기쁜 마음으로 매축지마을 찾았다. 일제강점기 때 조성돼 한국전쟁 피란민들이 터를 잡은 범일동 매축지마을은 아직도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가 많다. 하지만 골목마다 작은 집이 촘촘히 붙어 있는 열악한 환경 탓에 차량이 진입하기 힘들어 연탄을 일일이 옮겨야 한다. 높게 쌓아 올린 연탄을 보고도 11명의 아너 회원은 기분 좋은 미소를 띠며 지게를 진 뒤 본격적인 배달에 나섰다.

나눔 손길로 지펴주는 연탄불

이번에 배달한 연탄은 앞서 기존 아너 소사이어티 기부금과는 별도로 아너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했다. 송년회 대신 나눔을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부산 아너 회원들이 10만 원부터 240만 원까지 자유롭게 기부해 2주간 1,700여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이 기부금을 부산연탄은행으로 전달해 매축지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을 지원한 것. 200여 가구에 각각 연탄 100~150장을 배달하는 일에 부산 아너 클럽 회원들도 손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렸다. 긴 겨울 동안 연탄 한 장 한 장을 아껴 사용하며 연탄불을 지켜내는 이웃들의 마음을 알기에 연탄을 옮기는 아너 회원들의 손길은 조심스럽기만 했다. 마지막 연탄까지 무사히 배달한 후에야 11명의 아너는 비로소 지게를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 이들이 직접 쌓아 올린 연탄은 이웃들의 꽁꽁 언 몸과 마음을 녹여주며 긴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뜨거운 힘이 될 것이다.

1 (왼쪽부터) 지정희 아너 회원과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정성우 회장 **2** 연탄을 놓칠세라 조심조심 배달하는 아너 회원들

10억 원을 기부해 사랑의온도탑 나눔온도 11℃ 올린

대구 대표 나눔 기업 에스엘서봉재단

2021년 12월 1일 희망2022나눔캠페인(이하 희망나눔캠페인)이 출범하면서 전국에 사랑의온도탑이 세워졌다. 각 지역의 대표 나눔 기업들이 성금을 전달하며 사랑의온도탑 수은주를 올리는 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에스엘서봉재단이 무려 11℃를 올리며 통 큰 기부에 나섰다.

글 이선희 **사진** 대구 사랑의열매

대구 사랑의열매 김수학 회장(왼쪽)과 에스엘서봉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에스엘(주) 이충곤 회장

"앞으로도 에스엘은 대구 대표 기업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에스엘(주) 이충곤 회장

지난 2020년 11월 대구 사회복지 기관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지원한 에스엘서봉재단

대규모 성금 지원으로 희망을 나눔

지난해 12월 21일 에스엘(주) 진량공장에서 이충곤 회장, 대구 사랑의열매 김수학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이 큰 화제가 되었다. 무려 10억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달하며 희망나눔캠페인에 동참한 것. 에스엘서봉재단은 매년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있지만, 이번 캠페인에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대규모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달식에서 이충곤 회장은 "이 성금이 우리의 미래 세대를 키우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에스엘은 대구 대표 기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나눔 메시지를 전했다.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노력

에스엘서봉재단은 대구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에스엘(주) 이충곤 회장이 지난 2006년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곳이다. 대구·경북에서 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이 회장의 나눔 철학이 담겼다. 자신의 호인 '서봉'을 붙이고, 현재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이충곤 회장의 나눔은 그야말로 '진짜'다. 현재 총 300억 원의 출연금으로 지역사회 인재와 우수 연구 단체에 대한 지원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젊은 인재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사랑의열매에 22억 8,0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해왔다. 기부금은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지원, 대학생 장학 사업,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등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충곤 회장 개인으로는 2013년 1월 대구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9호 회원으로 가입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신념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에스엘서봉재단이 이번 캠페인에 보여준 큰 사랑 덕에 대구의 2022년은 좀 더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주)케이엔 김진규 회장 · 대원그룹 박병준 총괄사장

신축년 마지막 아너와 임인년 첫 아너의 아름다운 나눔

새해를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선 가는 해를 잘 정리해야 하는 법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울산시청에서는 2021년 마지막 아너 소사이어티 (이하 아너) 회원과 2022년 첫 아너가 함께 가입하며 아름다운 끝맺음과 희망찬 시작을 알렸다.

글 이선희 **사진** 울산사랑의열매

(왼쪽부터) (주)케이엔 김진규 회장,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 사랑의열매 박도문 회장, 대원그룹 박병준 총괄사장이 함께한 아너 가입식

한 해의 마지막 나눔이 주는 큰 울림

함께 가입한 두 아너 모두 울산 사랑의열매 박도문 회장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먼저 2021년 마지막이자 울산 109호 아너로 등재된 (주)케이엔 김진규 회장은 고래문화재단 이사장, 남구중소기업 회장, 울산광역시봉사단체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상일보 이사, 상공회의소 상임의원, 울산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규 회장과 박도문 회장은 일로 만나 친분을 쌓은 가까운 사이로, 평소에도 사회 공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도문 회장이 제안한 아너 가입을 김진규 회장이 흔쾌히 승낙하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가입식에서 박도문 회장은 "1억 원 기부가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도 선뜻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건넸고, 김진규 회장은 "2021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화답했다.

첫 부자(父子) 아너의 탄생

김진규 회장과 같이 아너 가입식을 진행한 대원그룹 박병준 총괄사장은 2022년 울산의 첫 아너가 되었다. 특히 박병준 사장은 울산 사랑의열매 박도문 회장의 아들로, 그가 아너 110호에 등재됨에 따라 울산에 처음으로 부자아너가 탄생하게 됐다. 이번 가입식에서 박도문 회장은 직접 아들에게 아너 명패를 건넨 후 축하 인사를 전하는 등 아버지이자 선배 아너로서 따뜻하게 환영했다. 박병준 총괄사장은 "2022년을 시작하며 아버지와 함께 나눔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이 좀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도문 회장은 "아버지로서 아들과 함께 울산 부자 아너 1호가 되어 자랑스럽고, 울산 사랑의열매 회장으로서 나눔에 동참해주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벅찬 감동을 전했다. 김진규 회장과 박병준 사장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 2022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이가 나눔에 함께하리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작은 나눔이 모여 이웃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 (주)케이엔 김진규 회장

"모두가 따뜻한 세상을 위한 나눔은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 사랑의열매와 함께 더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 대원그룹 박병준 총괄사장

2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나눔에 앞장서는
CNCITY에너지 황인규 회장

“대전의 발전이 곧 CNCITY에너지의 발전입니다”

대전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기업이 있다. 대전의 발전이 곧 자사의 발전이라면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할 일까지 지역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기업, CNCITY에너지 이야기다. 글 강은진 사진 서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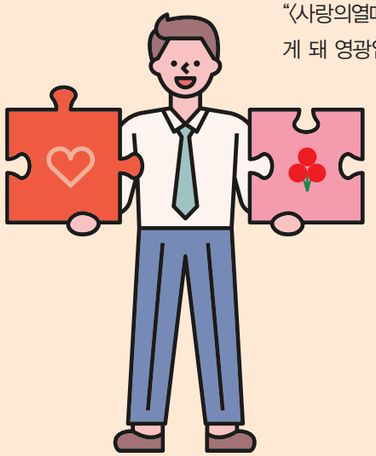
대전 시민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뿐 아니라 문화 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황인규 회장은 지역사회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대전 대표 향토 기업이라는 자부심

2022년 2월, 설 명절을 지나 진짜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그 새로운 시작에 만나는 사랑의열매의 나눔 기업은 대전의 대표 향토 기업 CNCITY에너지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CNCITY에너지만큼 임인년 2월 〈사랑의열매〉 표지에 적합한 곳이 또 있을까 싶다. 알다시피 올해는 검은 호랑이해! 용맹과 기세, 힘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와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을 만드는 에너지 기업은 어딘가 닮아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열매〉 2월호 표지로 인사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표지를 장식할 만큼 사회 공헌을 했는지…. 제안을 받고 다시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CNCITY에너지 황인규 회장은 "더 열심히"라는 말에 조금 더 힘주어 답했다. 대전의 발전이 곧 CNCITY에너지의 발전이라면서 말이다. 황인규 회장의 말에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향토 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이 넘쳐났다.



"표지로 인사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대전의 발전은 곧 CNCITY에너지의 발전이기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CNCITY에너지 황인규 회장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마음

황인규 회장은 인사말부터 이웃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매년 대전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에 큰 힘을 보태온 CNCITY에너지는 나눔명문기업이자 착한일터로 꾸준히 나눔에 동참 중이고, 황인규 회장은 대전 69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다. 2005년 임직원으로 구성한 나누우리 자원봉사 동아리로 시작해 2010년 희망나눔 자원봉사단을 창단해 기부와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 임직원의 정기 급여 나눔에 회사의 매칭 그랜트를 더한 자체 사회공헌 기금도 운영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국세청 희망의끈 잇기 사업, 취약 계층 어린이 장학금 지원, 노인복지관 송영 서비스 및 노후 차량 수리, 코로나19 위기 극복 특별 성금 등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

"CNCITY에너지는 대전의 기업 그 자체입니다. 저희의 자산인 배관이 대전시에 다 깔려 있어서… 설령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웃음) 대전이 어려우면 저희도 어렵고 대전이 잘되면 저희도 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대전의 발전을 바라죠."

대전의 발전이 곧 CNCITY에너지의 발전이라고 단언하는 황인규 회장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우리이기에 나눔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황인규 회장이다. CNCITY에너지의 사회 공헌 철학이기도 하다.

잘하는 일부터 해야 하는 일까지

2014년에 취임한 황인규 회장은 그동안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그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CNCITY마음에너지재단'을 설립해 매년 '에너지 스테이션' 같은 지역 문화 행사를 통해 대전 청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젊은 작가를 지원하는 등 대전 지역의 문화 부흥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사회 공헌 활동에서 CNCITY에너지는 잘하는 일부터 해야 하는 일까지 책임을 다하려 한다. 특히 황인규 회장은 가스 안전시설이 미비한 대전 지역 취약 계층에 대한 가스 설비 지원과 안전 교육에 보다 집중할 생각이다.

"가스레인지 설비 지원부터 가스타이머 콕 설치, 안전 교육 등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 고유의 전문성을 살리는 사회 공헌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저희만 할 수 있고,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요."

사랑의열매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겠다는 말도 잊지 않는 황인규 회장. 깨끗한 에너지와 마음 에너지로 세상을 연결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CNCITY에너지의 경영 이념이다. 한 치의 빗나감 없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꺼이 그 길을 걷고 있는 황인규 회장의 CNCITY에너지를 만나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어르신 일자리 저변 넓힌 청주 1호 실버 카페 '카페 솔솔'

"이제는 시민들의 지역 명소죠!"

**입소문이 자자한 카페가 있다.
푸른 소나무 가득한 너른 공원에 그림 같은
트레일러, 거기에 커피 향까지 완벽하다.
청주 실버 카페 1호 '카페 솔솔'이다.**

글 강은진 **사진** 충북사랑의열매

"어르신들이 도전할 수 있는 직업 영역이 보다 넓어져 의미가 큽니다. 누구든 공부하면 바리스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용기를 내보세요!"

– 청주흥덕시니어클럽 황대욱 팀장

시민의 응원을 받는 어르신 일자리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솔밭공원에는 요즘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카페가 있다. 푸르른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너른 공간 한쪽에 자리 잡은 트레일러형 카페 '카페 솔솔'이다. 이곳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SK하이닉스의 지정 기탁을 받아 충북 사랑의열매가 후원하고 청주흥덕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청주시 1호 실버 카페다. 실버 카페인 만큼 직원은 모두 61~76세의 어르신이다. 지난해 7월 공식 오픈한 후, 현재 20명의 실버 바리스타가 평일 주말 상관없이 4명씩 5개 조로 나누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중이다. 카페는 공원을 찾는 이용객부터 인근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직원들, 그리고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으로 항상 북적인다. 그만큼 인기가 좋으며, 입소문도 자자해 청주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카페 솔솔의 어르신 바리스타 직원들 모습

시민들 응원 큰 힘 돼

카페 솔솔은 어르신 일자리의 롤모델로 손꼽힌다.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카페 본연의 역할, 맛이다. 커피 원두 품평회나 신메뉴 개발은 기본이고, 2급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어르신들은 최고급 원두를 사용하는 커피를 비롯해 각종 스무디, 에이드, 차 등 18가지 다양한 메뉴를 정성스럽게 만든다. 특히 2,000~3,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인 아메리카노, 솔 향과 라임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솔향 에이드' 그리고 김밥, 샌드위치, 과일, 음료로 구성한 '피크닉 세트'가 인기다. 피트닉 세트의 경우 하루 전에 예약(043-237-0228)해야 하지만, 공원이라는 특성을 잘 살려 소풍 온 기분까지 만끽할 수 있어 없어서 못 팔 정도. 이 밖에도 SK하이닉스와 연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카페 100일맞이 추억의 뽑기, 달고나 만들기 등 재밌는 이벤트도 기획하는 등 홍보에도 적극적이다. 청주흥덕시니어클럽 황대욱 팀장은 "공원이라는 멋진 공간과 착한 가격, 열정 가득한 실버 바리스타의 실력이 성공 비결"이라면서,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일터를 응원해준 시민들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를 위해 기꺼이 동행하는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이웃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주)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기부부터 봉사까지, 지역 주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만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충남 사랑의열매

2021년 11월, 공주시 관내 이웃 250가구에 전달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 모습

지역사회 구석구석

인간 존중, 환경친화, 고객 감동이라는 경영 이념 아래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천안논산고속도로(주)다. 특히 연말연시면 김장김치와 연탄 등을 지원해 눈길을 끈다. 먼저 2021년에도 어김없이 공주시 관내 어려운 이웃 25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2,000kg(8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들이 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해 직접 김치를 전달하며 이웃들을 격려했다. 매년 겨울철이면 연탄 나눔 행사도 잊지 않고 진행한다.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업장 인근 공주시와 논산시 관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1만 장(80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사랑과 온정으로 나눌 터

천안논산고속도로(주)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로 공주시보건소 의료진들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열풍기와 각종 난방 기구도 지원했다. 또 충남 사랑의열매와 충남소방본부가 함께 진행하는 ‘가치가유 충남 119’에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이선관 대표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은 회사 경영의 중요한 실천 항목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천안논산고속도로(주)의 모든 임직원은 지역사회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논산고속도로(주)는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맥쿼리인프라펀드가 투자한 16개 사업 법인과 함께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논산고속도로(주)는 공주시의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9년 연속 장학금 후원사업, 장애인 단체와 시설, 독거노인·불우 어린이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기부와 주거환경 개선, 사랑의열매 성금 참여 등 저소득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1 사랑의 연탄 배달 나눔 행사 모습. 천안논산고속도로(주)는 매년 겨울이면 관내 이웃들에게 연탄을 지원하고 있다. **2**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공주시보건소 의료진을 위한 물품 전달식 모습

“앞으로도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임직원 모두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이선관 대표

사랑의온도탑 조기 달성에 빛나는 세종시의 나눔 이야기

“세종 시민의 따뜻한 온기를 만나보세요!”

세종시 희망2022나눔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캠페인 시작 44일 만에 목표액을 조기 달성할 정도로 뜨거웠던 시민들의 참여, 그 따뜻한 마음을 만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세종 사랑의열매

1

2

1 퇴임식 때 진행한 세종소방서 송재원 예방안전과장의 나눔리더 가입식에서 동료들과 기념 촬영 모습
2 희망나눔캠페인에 기부하기 위해 1년간 진행한 리봄화장품(주)의 사내 중고 마켓

미담으로 가득했던 세종시

세종시 희망2022나눔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 캠페인은 전개 44일 만에 나눔온도 100℃를 조기 달성했을 정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만든 세종 시민들의 성과다. 그래서일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가운데 나눔온도를 올린 미담이 넘쳐난다. 먼저 ‘세종의길 두발로’ 걷기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보자. 이들은 지난 1월부터 희망2022나눔캠페인을 위해 1km 또는 1,000보당 100원을 적립하는 ‘착한 발걸음 두발로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천변길, 마을길, 강변길 등 세종의 모든 길을 직접 두 발로 걸으면서 세종시를 체험하고, 나눔 정신도 일깨우며 성금 150만 원을 모아 기부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사내 중고 마켓 운영으로 이웃 돕기 성금을 기부한 회사도 있다. 바로 세종시 연동면 명학산단에 위치한 리봄화장품(주)이다. 리봄은 2013년부터 2억 5,000여만 원 상당의 자사 화장품을 세종시 이웃을 위해 기탁하며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엔 직원들이 나섰다.

10년 연속 조기 달성, 시민의 힘

리봄화장품 직원들은 구내식당 한편에서 무려 1년 동안 중고 마켓을 열고 자신들이 내놓은 중고 물품과 회사 제고품 등을 판매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사랑의열매에 기부한다는 사실에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리봄화장품(주)은 사내 중고 마켓 운영을 통해 553만 원을 모아 캠페인 성금으로 기부했다. 리봄화장품 관계자는 “세종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한 해 동안 마음을 모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연말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자신의 정년퇴직에 맞춰 나눔을 실천한 시민도 있다. 31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친 세종소방서 송재원 예방안전과장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던 송재원 과장은 퇴직 후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86호 나눔리더에 가입한 것. 송재원 과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훈훈한 소감을 전했다. 미담으로 가득했던 세종시의 희망2022나눔캠페인, 시민들의 힘을 다시금 확인한다.

세종시 전역을 누비며 1년간 걸은 걸음 수를 성금으로 환산해 이웃 돕기 성금을 모은 세종의길 두발로 걷기 동호회 회원들

2월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광주
전북
전남
제주

20년째 나눔으로 가슴 따뜻한 인술을 펼치는

전남대학교병원 학마을봉사회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고 하나 여전히 많은 의료 소외 계층이 있다.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병원 문턱을 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환자를 마주하는 의료진과 병원 직원들 마음이야 오죽할까. 전남대학교병원 학마을봉사회는 그 마음이 모여 탄생했다.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의 일이다.

글 이선희 **사진** 이승재, 전남대학교병원

나눔은 우리의 자랑이자 자부심

학마을봉사회는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으로 구성한 순수 봉사 단체다. 2002년 창립 당시 IMF 외환위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자 '우리 직원들이라도 나서서 환자들을 돕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무려 540명이 뜻을 모았다. 월급의 일정 부분을 기부해 차곡차곡 모은 돈은 광주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남대학교병원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올해로 창립한 지 꼭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학마을봉사회가 걸어온 길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현재

(왼쪽부터) 학마을봉사회 재무이사 조은영 재무회계팀장, 간사 한아름 사회사업팀 의료사회복지사, 부회장 화순전남대병원 간호부 봉영숙 부장, 회장 박창환 소화기내과 교수, 부회장 류현호 응급의학과 교수, 간사 박은선 전산과장, 총무이사 최소형 사회사업팀장

1, 2 학마을봉사회를 알리고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나눔도 두 배!, 행복도 두배!' 캠페인 모습
3 학마을봉사회 홍보 모습

2,0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807명의 환자에게 21억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저희 봉사회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웃음)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정기 이사회 등을 통해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합니다. 무엇보다 직원 한 명 한 명의 작은 정성이 모여 21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자랑 아닐까요?"

학마을봉사회를 소개하는 소화기내과 박창환 교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이는 자신이 봉사회를 이끄는 회장이라서가 아니었다. 봉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나눔을 펼쳐나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의료진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존재

2002년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봉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화순전남대병원 간호부 봉영숙 부장. 흉부외과 수간호사 시절 오히려 본인이 학마을봉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심장 수술을 하는 과 특성상 검사와 수술 등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면 거액의 의료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의료진 앞에서 경제 사정을 전혀 내색하지 않던 보호자가 퇴원 무렵 병원비를 내려고 전세 자금을 뺐다고 힘없이 말하는 게 아닌가. 봉 부장은 부랴부랴 학마을봉사회로 연결해주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를 보면 저희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존재라고나 할까요.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너무 잘 알죠."

봉영숙 부장과 함께 학마을봉사회 부회장직을 맡은 응급의학과 류현호 교수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전공의 시절에 봉사회 회원이 된 류 교수는 생사를 넘나드는 응급의학과야말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초기엔 학마을봉사회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알아도 어렴풋이 아는 정도였고요. 그런데 형편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학마을봉사회와 연결되는 걸 보고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때 저를 비롯한 젊은 전공의 70~80명이 한꺼번에 가입했어요."

이제는 의료진끼리도 의료 사각지대 환자를 발견하면, 학마을봉사회로 연결하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라고. 혹여 회원이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학마을봉사회는 적어도 '숨통을 트이게 하는 존재'임은 분명하다.

작은 나눔이 모여 지역사회를 바꾸기까지

작은 나눔이 모여 운영하지만, 일선 의료 현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한들 2,000여 명의 회원이 '저절로'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병원 자체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교육·바자회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진 결과일 터. 또한 제도권 밖에 숨어 있는 의료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광주시 5개 구청과 화순군청과의 의료 서비스 협약을 맺어 대상자를 더 많이 찾아내는 등 진심을 다하는 모습도 회원이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회원들이 모은 기금은 광주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기타 부대 비용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100% 환자만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도 직원들이 마음을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병원을 찾는 환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의료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의료봉사를 나가는 등 20년간 꾸준히 이웃사랑 실천과 기부 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상, 전남대학교병원장 감사패, 2021년에는 '사랑의열매 대상' 시상식에서 나눔장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금까지 학마을봉사회가 이룬 것만 하더라도 회원들의 '자부심'이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하지만 봉사회원인 게 가장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는 의료비를 지원받는 환자에게 "우리가 모은 기부금"이라고 말할 때라고 한다. 사람을 살리는 인술은 꼭 의료진만 펼치는 게 아니었다. 학마을봉사회의 회원들이 모은 작은 나눔이 무너질 뻔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으니, 이 또한 인술이라 감히 말해본다.

'청년DIY아카데미–청년, 일타강사'에 참여한 청년은 오일파스텔화를 활용한 원데이 클래스를 시작했다.

비구직 NEET 청년의 사회진입 역량강화를 위한 '희망플랜' 시즌 II

내 삶을 디자인하는 슬기로운 청년 생활

학교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청년 중에서도 구직 활동까지 내려놓아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비구직 니트 청년. 전북 사랑의열매와 전주평화사회복지관은 그들의 사회 진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플랜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놀라운 변화로 희망을 일군 청년들의 이야기.

글 이선희 **사진** 전북사랑의열매

청년의 마음을 돌보는 심리 정서 지원 사업

평화사회복지관은 니트상태에 있으며, 진로계획 및 구직의향이 없는 청년들의 기초상담을 통해 니트판별과 진로미결정 원인을 분석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먼저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개별심리상담 및 집단상담을 지원하며, 청년들만의 심리상담 토크쇼를 운영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가는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및 직업을 모색하고,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받았다. '청년챌린지 및 자격증반'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는가 하면,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고 실전 취업 준비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 2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바리스타에 관심과 재능을 보이던 청년이 카페 창업을 앞두고 있다.

일상의 에너지를 찾는 지지 체계 구축 프로그램

희망플랜 1~2차 연도에는 가족과 또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면, 3차 연도에 접어든 지금은 지역사회로 지지 체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혼밥'을 주제로 지역사회 내 청년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손수 만든 음식을 지역사회 내 소외된 계층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형성해가고 있다.

청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다

희망플랜이 3차 연도 사업에 접어들자 51명의 참여자에게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됐다. 먼저 '청년DIY아카데미–청년, 일타강사'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 활동을 시작한 청년들은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마쳤고, 현재 지역 내 여러 기관으로 활동을 넓힐 계획을 모색 중이다. '아동요리지도사 강사양성반'에서는 6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1월부터 아동센터 및 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하며 어엿한 강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도록 그들을 위한 공간을 내주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의 개인 역량이 늘어나고, 지역사회의 따뜻함이 어우러지고 있는 것. 그래서 청년들의 미래는 마냥 어둡지만은 않다. 전북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1 자신의 수업 홍보를 위해 청년 강사들이 직접 만든 포스터
2 지역사회 청년들의 관계 형성 프로그램인 '혼밥요리교실'

1998년부터 이어온 이웃사랑의 전설

십시일반 나눔의 대표 주자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사랑의열매의 연말연시 이웃 돕기 모금 캠페인인 '희망나눔캠페인'은 1998년부터 시작해 벌써 24번째 이어졌다. 스물네 차례의 캠페인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성금을 전달한 '전설' 같은 곳이 있다. 이번 캠페인에도 십시일반 모은 사랑을 전한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다.

글 이선희 **사진** 전남 사랑의열매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에서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사랑의 백미

(왼쪽부터)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김홍배 부회장,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정덕안 회장, 임채열 부회장

힘든 이웃을 위해 더 많은 마음이 모여

지난해 12월 30일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정덕안 회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2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24개 지부 내 322명의 회원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2,035만 원을 기탁했다.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지난 캠페인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회원이 성금을 보내왔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회원들끼리 나눔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서 정덕안 회장 역시 "코로나19와 한파까지 겹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웃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회원들의 뜻을 대신 전달했고, 노동일 회장은 "올해도 회원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전라남도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자발적 나눔의 힘

사랑의열매와의 인연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친분이 있던 사회복지 관계자가 사랑의열매 추진을 맡으며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에 사랑의열매 프로그램을 소개해준 것. '공동 모금'이라는 낯선 개념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공감한 법무사회는 1998년부터 매년 진행한 이웃 돕기 성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왔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광주와 전남의 법무사들이 모은 기부금인 만큼 공평하게 광주 사랑의열매와 전남 사랑의열매에 번갈아 기탁하는 것도 이제는 전통 아닌 전통이 되었다.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관계자는 "국가 재난이 있을 때마다 회원들이 십시일반 나눔을 전한다"며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나눔문화임을 강조했다. 사랑의열매 외에도 지역의 보육 시설 아동들을 보살피고,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에 나서는 등 다양한 나눔을 펼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의 나눔 활동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다른 단체들도 그들과 함께 선행에 나서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다.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든다.

제주 사랑의열매, QR코드 모금 성금 제주올레에 1차 전달

“이동 약자와 함께 가는 올레길이 됩니다”

세계 10대 해안 트레일 중 세계 최초로 디지털 저금통을 설치한 제주 올레길! QR코드로 모금한 소중한 성금이 제주올레에 1차로 전달됐다.

글 강은진 **사진** 제주 사랑의열매

1

2

1 QR코드 모금 디지털 저금통은 제주 올레길 공식 안내소 14곳에 설치돼 있다. **2** 기부를 위한 디지털 저금통은 세계 10대 해안 트레일 중 하나인 제주 올레길에 최초로 설치됐다.

따뜻한 올레꾼들의 마음

지난해 12월 24일, 제주 사랑의열매는 QR코드 모금을 통해 마련한 성금 1,045만 8,768원을 1차로 전달했다. 서귀포시청에서 진행한 전달식에는 QR코드 모금 1호 기부자인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고경준 회원을 비롯해 서명숙 (사)제주올레 이사장과 김태엽 서귀포시장, 제주 사랑의열매 심정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올레길 QR코드 모금이란 제로페이 결제 방식을 도입해 은행 및 간편 결제 앱이나 제로페이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원하는 금액을 입력해 기부할 수 있는 디지털 저금통이다. 지난해 4월 제41회 장애인의 날에 진행한 제주 사랑의열매와 (사)제주올레의 협약식을 시작으로 제주 올레길 공식 안내소 14곳에 설치해 모금이 전개됐다. 특히 QR코드를 통한 모금은 10대 해안 트레일 중 하나인 올레길이 최초이고, 올레꾼들이 모은 따뜻한 마음이기에 그 의미를 더했다.

디지털 기부의 가능성 확인

디지털 저금통을 통해 모인 성금은 전액 도내 이동 약자의 활동 영역을 개선하는 데 사용한다. 올레길 중 휠체어 구간 10곳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는 등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구간을 조성,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서명숙 이사장은 “올레꾼들의 따뜻한 나눔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올레길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사랑의열매 강지언 회장은 “이번 QR코드 모금으로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모인 것을 통해 디지털 기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제주 사랑의열매는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나눔문화를 이끌어 가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4월 디지털 모금 업무 협약 이후 현장 모금 부스 운영, 디지털 모금 굿즈 제작, SNS 인증 이벤트, 환경 정화 연계 나눔봉사단 봉사 활동 등 디지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했다.

> “제주 올레길 QR코드 모금은 디지털 기부의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남다릅니다.”
>
> – 제주 사랑의열매 강지언 회장

제주 사랑의열매와 제주올레가 함께하는 모금 1차 전달식

함께 돌보고, 함께 해결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로 나아갑니다

누군가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기심이 판치고 갈등은 점점 심해지는 사회라고도 한다. 하지만 사랑의열매는 전국의 나눔 기관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며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꿈꾸며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중이다.

글 이선희 **사진** 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 조성흠

#1

공유 공간 문화예술터에서 진행 중인 여행 작가와의 만남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형성 프로젝트
우리마을 나누쉐어(Share)

공공 임대주택 주민들은 이웃 연결망이나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해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은 2020년부터 나눔과꿈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마을 나누쉐어'를 진행하며 공유 경제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1차 연도는 공유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차 연도에서는 공유 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었다. '함께나누장' 공유 플랫폼에서 물품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주민이 보유한 재능·지식·정보까지 나눌 수 있도록 하였고 공유 공간인 꿀단지카페에서 함께 배우고 식사 모임을 하는 등 임대 단지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3차 연도에는 지속 가능한 공유 경제 모델을 구축해 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1 주민 소모임 중 하나인 산책 모임
2 주민 공유 공간인 꿀단지카페를 운영하고, 공유 활동을 주선하는 공유 마을 매니저들

강릉 로컬 셀러들과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진행한 CCC festa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강원도 강릉은 대표적 관광도시다. 그중에서도 서부시장은 1977년 문을 연 유서 깊은 전통시장이지만, 강릉에서도 고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구도심에 자리한다. 지속적인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에 따라 지역이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상황이다. 서부시장 역시 전체 160개 점포 중 50여 개만 운영 중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창고나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볼거리 부족, 낙후된 시설, 상품 종류 부족 등으로 서부시장 상권이 쇠퇴했다. 이에 공공미술프리즘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후원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차 연도 사업에서는 지역 상권 리브랜딩, 상가 리모델링 등으로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며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2차 연도에는 특색 있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활동가 · 예술가 · 청년 등 다양한 참여자를 발굴해 추후 지역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했다. 앞으로 특색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서부시장만의 차별화한 이미지 및 콘텐츠를 마련해 지역 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1 깔끔하게 바뀐 서부시장 메인 간판
2 복합 문화 공간 CCC라운지를 조성하기 전에 열린 설명회

Mini Interview

공공미술프리즘
유다희 대표

사업을 진행한 지난 2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환경 개선을 함으로써 기존 상인에게는 쾌적하게 변화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고, 강릉 시민에게는 서부시장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새롭게 인식하게 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의 푸드홀을 조성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시장을 찾고, 청년 상인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시장 분위기도 바뀌었고요.

기존 도시 재생 사업과 차별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보통 시장을 통한 재생 사업은 시장의 원 기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제순환의 시장이 아닌, 강릉 구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실험과 시도가 가능한 새로운 시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서핑을 즐기는 예술가가 먹고 버리는 강릉 대게 게딱지를 활용해 조명을 디자인하며 환경 문제에 접근하기도 하고요. 30년간 손만두를 빚은 가게 주인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더해 손만두 밀키트를 만드는 협업 등 강릉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본질적 개념의 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 정책이나 공공 지원을 보면 대부분 시장 활성화 방안 따로, 청년 창업을 따로 접근했어요. 이번 사업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며 여러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틀 안에서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방법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기존 정책이나 공공 지원에서는 할 수 없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차 연도 사업은 어떤 부분에 집중할 계획인가요? 지난해까지는 강릉시청에서 매입한 서부시장 2층을 복합 문화 공간 CCC라운지로 조성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을 만나는 일을 많이 했고요. 올해부턴 청년이 입주해 사업을 육성하는 등 시장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는 실질적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관악구 청년 문제 주도적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청년이 함께 생각하고 움직이는 띵(Think)-동(動)연구소

서울 관악구의 20·30대 인구 비율은 39.9%로 전국 1위를 차지하지만, 정작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들의 사회 참여율은 낮고, 기회도 부족하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참여와 변화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에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돼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기반 확대, 지역 내 청년 지원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19년부터 3년간 띵동연구소 사업을 진행했다. 청년 리더를 선발해 직접 커뮤니티를 기획해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 간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세대와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마을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8개 기관이 함께하는 지역 내 최대 규모의 민간 청년 연대 '관악유스크루'를 조직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연대 활동을 이어가도록 했다.

1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의를 진행한 청년재능공유학교 참여자와 아동들 **2** 청년 커뮤니티 디자이너 워크숍에 참여한 청년 리더들

Mini Interview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박희선 담당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중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이었나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악청년희망연대(관악유스크루)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와 단체가 연합해 청년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활동, 정책 제안, 공동 사업 추진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협업의 경험을 기반으로 기관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대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업과 어떻게 차별화했는지 궁금합니다 관악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청년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으려 했습니다. 기관이 아닌 청년들이 주도하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 48명의 청년리더 집단을 양성해 233명의 청년들과 안정적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했으며, 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다양한 주민과 교류하는 경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을 꼽는다면요?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지역에 되돌려주고 싶다며 복지관에 기부하거나 봉사단체를 조직해 활동했고, 정책 제안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청년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나눔과꿈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눔과꿈으로 함께한 3년은 우리 마을에 역량 있는 청년 시민이 있음을, 다양한 세대의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음을, 청년을 포용하는 청년 친화적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울산 아너 1호 경북타일 우재혁 대표

“기부로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우재혁 대표는 자수성가의 표본이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무일푼으로 타일 장사를 시작한 그는 경북타일을 매출 80억의 강소기업으로 키워냈다. 타일 도매업으로는 경이로운 매출이다. 우 대표가 남다른 이유는 기부로 사업 성공의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글 강보라 사진 이승재

“기부는 마르지 않는 우물 같아요. 길어낸 물로 목마른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고, 퍼낸 만큼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 차오르니까요.”

부부 아너의 아름다운 나눔 철학

우재혁 대표는 울산 최초의 아너로 전국에서는 네 번째 아너 회원이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 금액만 2억 2,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기부에 진심이다. 하지만 “기부에서는 아내(울산 80호 김순희 아너)가 한 수 위”라며 몸을 낮춘다. 김순희 아너는 남편 우재혁 대표와 함께 경북타일을 일군 동지이기도 하다. 한번은 명절을 앞두고 기부 계획을 묻는 아내에게 “올해는 장사도 잘 안 됐는데,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이것도 약속인데, 한번 시작했으면 지속적으로 이어가야지 여유 된다고 하고 없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호통을 듣기도 했다며 웃는다. 기부에서만큼은 ‘뛰는 남편 위에 나는 아내’가 따로 없다.

“부부는 공동경제라서 남편이 하고 싶어도 아내가 눈치 주면 실천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불편함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아내 제안을 따르기 바빴습니다.(웃음)”

우재혁 대표는 기부의 99%가 아내의 영향이었다며 뒤로 물러선다. 이토록 아름다운 부창부수의 호흡은 경북타일을 일구는 원동력이 되었고, 부부 아너로 나누는 삶을 사는 바탕이 되었다.

성실과 정직으로 쌓아 올린 경북타일

경북타일은 울산을 대표하는 타일 도매업체로 경상도는 물론, 바다 건너 제주까지 경북타일을 거치지 않고서는 타일 장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하다. 물론 이만큼 자리를 잡기까지 고생도 많았다.

〈울산 아너 인물 캐릭터〉 전시회에서 아너 회원들과 기념 촬영하는 우재혁 대표. 울산 아너 2대 회장이던 우 대표는 아너 회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제작·전시해 나눔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다.

"1977년 울산에 와서 타일 장사를 시작했는데, 참 힘들었죠. 물건은 팔리는데 어음으로 수금되면서 물건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게다가 물건 대금 중 30~40%를 못 받는 일이 늘어나면서 폐업을 생각할 정도로 위기에 처했지요."

그렇게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재혁 대표는 현금 수금을 선언했다. 대신 박리다매로 같은 값이면 더 싸게 더 좋은 품질의 타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처음에는 "돈 벌더니 달라졌다"는 오해로 욕도 많이 먹었다. 하지만 우직하게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박리다매의 기본 원칙을 고수했다. 그렇게 45년의 세월을 지나며 "경북타일은 정직한 곳", "가격 좋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는 평판을 쌓을 수 있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199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부를 시작했는데, 기부의 이유 역시 우직하고 정직한 경북타일답다.

"경북타일을 이용해주신 분들 덕분에 회사를 이만큼 키울 수 있었죠. 울산 시민과 함께 키운 회사이기 때문에 보답의 방법으로 기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눔 원로로 기부 문화를 바꾸다

우재혁 대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을 미덕으로 배운 세대다. 그래서 기부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불편하게 느낀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오른손이 한 일이 알려져서 기부하는 손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일손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우 대표는 기부의 생활화도 강조한다.

"이벤트처럼 특별한 기부도 소중하지만, 일상에서 꾸준하게 이어가는 정기 기부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양식보다 삼시 세끼 밥이 진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재혁 대표 역시 정기 기부를 위해 울산 지회에서 만든 천사 계좌에 후원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이어온 정기 기부금이 울산 전역에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없다고 말한다.

"울산 아너 2대 회장으로 사랑의열매 지원 사업을 옆에서 지켜보며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명성과 전문성에서는 사랑의열매만 한 기관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인생 2막에 그리는 기부 로드맵

타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믿음과 신뢰는 우재혁 대표의 가장 큰 자산이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흙수저' 출신이지만, 거짓 없이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우재혁 대표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그래서 그는 어디선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제2의 우재혁'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꿈꾼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장학제도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보다 인식이 바른 사람, 인성이 좋은 학생들을 후원하고 싶어요. 그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꿈입니다."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간직하면 한이 되지만, 이런 개인적 한을 기부와 후원으로 승화하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름이 된다. 어쩌면 나눔은 개인의 아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기적의 치유제가 되는지도 모른다. 우재혁 대표는 인생 2막에 그렇게 자신만의 기부 로드맵을 그렸다.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면 살맛 난다고 하잖아요! 가끔 '경북타일의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를 건네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부할 맛이 납니다. 이런 비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웃음)"

나눔으로 맛을 더하는

착한가게 서울 맛집 탐방

이웃들의 일상을 지키며 나눔의 수문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착한가게! 거기에 먹으면 먹을수록 기부가 되는 식당이 있다면? 이달에 만나볼 우리 동네 착한맛집은 맛과 친절, 나눔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서울이다.

글 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단골들이 보증하는 맛과 친절
iL coffee 을지로점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02-6031-0017
매일 오전 7시~오후 8시 30분

얼마나 핫하면 을지로가 아니라 힙지로라 부를까. 그 힙한 을지로 한가운데 파인에비뉴에 자리한 착한가게 '일(iL) 커피'! 유동 인구 많은 동네에서 단골이 많기로 소문난 카페다. 부드러운 크림이 가득한 아몬드 라테의 고소함은 하루의 피로를 날리기에 충분하다. 기본기 탄탄한 아메리카노를 2,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 초록 식물로 포인트를 준 시원한 개방감의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일 커피의 또 다른 자랑은 바로 스콘이다. 큼직한 크기에 촉촉한 식감, 진한 버터 향이 커피와 잘 어울린다. 특히 말차 스콘이 인기다. 생과일을 아낌없이 넣은 상큼한 주스와 에이드, 스무디도 인근 직장인에게 입소문이 자자하다.

일 커피는 무엇보다 친절하기로 유명하다. 홍윤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직원들 덕분에 잘 버티고 있다고 말한다. 창업을 하면서 착한가게에 기부하기 시작한 홍윤석 대표는 가게 이름으로 후원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했다. 언제나 내 주변의 이웃 한 명은 챙길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면서 말이다.

참나무초벌구이의 향긋함
옛골토성 도봉산점

서울시 도봉구 도봉산4나길 43 02-955-5667
매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있으면 먹는 돼지고기, 사주면 먹는 소고기와 달리 내 돈 주고서라도 사 먹는 게 바로 오리고기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보양식으로 이만한 게 없다. 특히 '옛골토성'의 대표 메뉴인 오리훈제바베큐는 4시간 이상 훈제한 국내산 오리를 참나무 가마에 한 번 더 굽고, 숯불에 한 번 더 구워 맛이 더욱 깊고 풍부하다.
연잎밥과 열무국수 등 맛과 영양의 균형을 맞춘 식사 구성도 옛골토성 도봉산점의 자랑이다. 연잎을 살짝 펼치면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이 식욕을 돋우고, 찰밥의 쫀득한 식감이 입안에 기분 좋게 붙는다. 시원한 열무국수는 고기와 잘 어울릴 뿐 아니라 식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준다.

옛골토성 도봉산점은 도봉산역 인근의 대표 맛집으로, 방송에도 숱하게 소개됐다. 도심 속에서도 푸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매력적! 등산객뿐 아니라 실내·외 너른 좌석은 가족 모임까지 할 수 있는 전천후 맛있는 사랑방이 되어준다.

소곱창의 신흥 강자
영재소곱소곱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21길 68 1층 010-9286-2107
오후 3시~새벽 1시(첫째·셋째 주 일요일 휴무)

맛있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는 강서구의 신흥 곱창 맛집이다. 깔끔한 인테리어, 친절한 서비스에 맛있는 곱창까지 칭찬 일색! '영재소곱소곱' 전영재 대표는 금융권에 종사하다 뜻한 바가 있어 2년 전 창업했다.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렸지만, 맛에 대한 끝없는 연구로 정면 승부해 재료 소진 팻말을 붙일 만큼 맛집으로 성장시켰다.
소곱창부터 돼지곱창, 무뼈닭발까지 다양한 메뉴 중 대표 메뉴는 당연히 소곱창이다. 곱이 꽉 차 있는 신선한 곱창은 입안을 고소함으로 가득 채운다. 소금장과 고추절임장 소스의 어우러짐도 일품. 부추를 잔뜩 올려 같이 구워 먹으면 그야말로 별미다.
영재소곱소곱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모든 음식은 전영재 대표가 구입부터 조리까지 직접 다 한다. 손님이 싹 비우고 간 테이블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전영재 대표는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자 착한가게에 가입했다고. 진짜 음식을 내놓는다는 자부심과 함께 기부까지, 참 멋지다.

첫 월급으로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동참한
(주)일신화이바 신입 사원들

“첫 직장, 첫 월급, 첫 기부로 행복합니다!”

(주)일신화이바 직원 권용찬(맨 왼쪽), 김진영(맨 오른쪽) 씨가 경북 경산시 하양읍행정복지센터에 200만 원의 성금을 전하고 있다.

첫 월급을 뚝 떼어 기부한 멋진 신입 사원들이 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장님의 모습이 계기가 되었다.
더없이 아름다운 청춘의 나눔을 만나보자. 글 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이제는 나눔 동창

지난해 12월 27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행정복지센터에 멋진 청년 두 명이 찾아왔다.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을 희망2022나눔캠페인을 통해 기부하겠다면서 말이다. 이들은 자신의 월급에서 100만 원씩 뚝 떼어 이웃을 위해 쾌척했다. 이 풋풋한 나눔의 주인공들은 영천시에 위치한 (주)일신화이바 신입 사원 김진영, 권용찬 씨다. 고교 동창 사이인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 나란히 입사해 기부까지 함께 하며 나눔의 동창이란 특별한 인연까지 만들었다.

“저나 용찬이 모두 하양읍에 살아요. 학교도 여기서 다녔고요. 그래서 이곳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고… 취업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뿌듯해요.”

건실한 청년이란 표현은 이 두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소감을 전하는 김진영 씨의 목소리에서 선함이 가득 묻어났다. ‘다들 대견해하는 모습에서 잘한 일’이라 느꼈다는 권용찬 씨도 마찬가지였고. 그나저나 이들은 어떻게 첫 월급을 기부하게 됐을까?

기부하는 사장님을 보며 감동받아

“저희 사장님은 기회만 되면 기부를 하세요. 또 평소 직원들 시키면 될 일도 본인이 스스로 하시면서 솔선수범하시고요. 그런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본받고 싶기도 했고요.”

권용찬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기부의 계기도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조금씩 주위도 둘러보면서 서로 도우며 살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베풀며 사는 삶에 대해 종종 이야기도 나눈다고. 하지만 기부의 선배로서 조언을 부탁하는 질문엔 아직 그럴 위치가 되지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며 쑥스러워한다. 다만, 사장님의 기부 모습이 계기가 된 자신들처럼 이번 기부가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없이 아름다운 청춘의 나눔이다.

“나눔은 작은 것에도 함께 기분이 좋아지는 일 같아요!” – 권용찬

“이어지고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기부 아닐까요.” – 김진영

나눔에서 시작된 경영 혁신

중소기업의 뜻을 모아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하 메인비즈협회)는 메인비즈 제도 관리기관으로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이다. 경영 혁신을 대표하는 이곳에서도 나눔은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한다.

글 강보라 **사진**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는 중소기업의 선봉에서 코로나19 사태의 험난한 파고를 넘어왔다. '메인비즈(MAINBiz)'는 경영(Management), 혁신(Innovation),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전국 약 20,000여개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경영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이런 성장의 비결에는 메인비즈협회만의 나눔 철학이 함께한다.

중소기업경영혁신대회에서 되새긴 이웃사랑

메인비즈협회는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과 함께 '2021 중소기업경영혁신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경영혁신대회는 메인비즈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영 혁신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축제의 장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영 혁신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 포상이 대폭 확대돼 대회의 위상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였다. 협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회원사와 함께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동참해 9,43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회원사와 임직원들은 ESG 경영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에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 취약 계층 지원, 교육 격차 완화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메인비즈협회 석용찬 회장, 서울 사랑의열매 윤영석 회장, 서울 사랑의열매 박용주 부회장

위기의 순간에 구원투수로 나서다

메인비즈협회의 나눔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난다. 코로나19 초기에 어려움을 겪은 대구·경북 지역의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및 협회 회원사에 마스크 2만 1,000장을 긴급 지원한 것이다. 당초 1만 장을 목표로 했으나 회원사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목표 금액을 초과해 1만 장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해당 성금은 대구·경북 지역의 회원사에 대한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서 최초의 미담 사례로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슈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결핵 퇴치 성금도 눈길을 끈다. 결핵 환자 지원 성금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어진 것으로, 소외 계층을 보듬는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이처럼 적재적소에서 온정을 전하는 메인비즈협회의 활동은 나눔의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인식 개선으로 실천한 도덕 경영

메인비즈협회 석용찬 회장은 '리브 투게더(Live Together)'에 동참하며 인식 개선에도 나섰다. 리브 투게더는 유네스코(UNESCO)와 외교부에서 시작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촉발된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인종차별 반대 릴레이 캠페인이다. 실제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피해가 심해 중소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석용찬 회장은 "우리 주변의 모든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인비즈협회는 뜨거운 연대와 포용 정신을 바탕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메인비즈협회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혁신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1

2

3

1 자발적 모금으로 대구·경북 지역 회원 기업에 지원한 방역 마스크 2만여 장과 메인비즈협회 대구·경북연합회 이재표 연합회장 모습
2 석용찬 회장은 '리브 투게더' 캠페인에 참가하며 연대와 포용 정신을 강조했다.
3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 참여로 역경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탰다.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사랑의열매도 힘을 보탭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사랑의열매의 따뜻한 손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에서도 사랑의열매의 든든한 활약을 볼 수 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각 나눔기관

‘숨은 공신’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챙긴다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예방접종센터엔 백신 접종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외에도 매일 많은 자원봉사자가 구슬땀을 흘리며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접종 현장에서 대상자 신원 확인, 절차 및 동선 안내, 이동 지원, 예진표 작성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원봉사자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는 숨은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사랑의열매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부산 사랑의열매는 부산강서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546명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경북 사랑의열매는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625명에게 도시락을, 전북 사랑의열매는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25명에게 식대를 제공하며 그들의 빛나는 봉사 정신에 감사함을 표했다.

“덥고 비도 많이 오는 힘든 여건 속에서 15일간 봉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많은 회원이 책임감 있게 봉사를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자긍심과 봉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 완주군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 해병대전우회 완주지부 최영우 국장

1 접종 대상자의 현장 안내를 돕고 있는 부산강서구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모습
2 휠체어 이동 지원 중인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코로나19 의료진 응원상자 전달식

지난해 10월 12일 부산시민공원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종사자를 위한 응원상자 전달식이 열렸다. 이번 물품 전달식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원하고, 부산 사랑의열매와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지원한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이 직접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응원상자를 만들었다. 상자는 방역 물품인 손 소독제와 마스크는 물론 힘들 때 먹으면 좋은 홍삼 스틱, 콜라겐 등 간식으로 구성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이 손수 포장한 420명 분의 응원상자는 부산 16개 구·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각 지역 예방접종센터에 전달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이 만든 코로나19 의료진 응원상자
4 코로나19 응원상자 전달식 모습

MINI INTERVIEW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
소원섭 이사장

백신예방접종센터에 자원봉사자가 왜 필요한가요?
완주군에선 접종센터에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이송 버스를 운영했습니다. 버스가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접종자들이 버스를 타고 나갈 때까지 전 과정에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접종 시작 1시간 전부터 비와 햇빛을 피하는 천막을 치고, 의자를 배치하는 등 보건소와 주민센터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의열매의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전에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을 특별하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여름 땡볕에서도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해주시는 분들께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번에 전북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중앙회

예종석 한양대 명예교수,
(사)제주올레에 저서 인세 기부

사랑의열매 9대 회장을 역임한 예종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저서 〈당선비책〉(나남)의 인세를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기부 협약은 예종석 명예교수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인세는 (사)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를 통해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 예종석 명예교수는 "제주올레가 후원으로 운영·유지하는 순수 민간단체인데도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제주올레를 응원하고, 나눔문화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서명숙 이사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광범위한 개념의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 연중 광고, 올해의 광고PR대상 금상 수상

2021년 사랑의열매 연중 광고 '기부의 재발견'이 한국광고PR실학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광고PR상' 정부공공부문광고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사회 구성원이 함께 재원을 모아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공동 모금의 강점을 부각하고, 모금에 초점을 맞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발한 배분 사업을 소개하며 젊은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랑의열매 2020 지속가능보고서, 국제대회 최고상 수상

사랑의열매가 지난해 발간한 '2020년 지속가능보고서'가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Spotlight Awards) 지속가능보고서 부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플래티넘을 수상했다. 사랑의열매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내용 및 2020년 모금 및 배분 성과를 풀어내며 사랑의열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달력, 창의성, 디자인 등 총 6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

홍보대사 김나운, 1억 원 상당 마스크 기탁

서울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김나운이 소속사 올박스(대표 이창원)와 함께 1억 원 상당의 마스크 41만 7,000여 장을 기탁했다. 마스크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양천구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했다. 평소에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온 김나운은 "주변 이웃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 서울 초·중·고 학생 나눔캠페인 성료

서울 사랑의열매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1,316개 학교와 함께 '2022 서울 초·중·고 학생 나눔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서울 언북초등학교는 학생회에서 캠페인을 기획하고, 전교생과 모금 활동을 펼쳐 그 결과를 조회 방송 시간에 발표하기도 했다. 캠페인 기간동안 모금한 성금은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조식 지원 사업과 위기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부산

월동기 대비 자활 참여 어르신 지원 사업비 전달식

부산 사랑의열매가 코로나19 및 혹한기 취약 환경에 노출된 자활 참여 어르신들을 위해 부산 시민의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 1억 원을 부산광역자활센터에 전달했다. 부산광역자활센터는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의 추천을 통해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자활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 1,000명에게 생계비 10만 원씩을 지원했다.

(주)동원개발, 나눔명문기업 골드 회원 가입

부산을 대표하는 종합 건설 회사 (주)동원개발(회장 장복만)이 나눔명문기업 골드 회원으로 가입했다. 2021년 상반기에 2억 원을 기부한 (주)동원개발은 이번 가입을 통해 3억 원을 추가 기부하기로 했다. 부산 아너 116호 회원인 장복만 회장은 "사회 가치 창출과 공익에 기여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조일알미늄(주) 이재섭 회장, 올해도 2억 원 통 큰 나눔

조일알미늄(주) 이재섭 회장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대구 사랑의열매에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이재섭 회장은 2019년 팔순을 기념해 2억 원,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사랑의열매 개인 기부 최고액인 7억 원을 기부하는 등 평소 거액의 성금을 기탁해왔다. 또한 춘곡장학회를 설립해 30여 년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대성에너지(주), 이웃사랑 성금 8,000만 원 기탁

대성에너지(주)(대표 윤홍식)가 대성에너지(주) 노사협의회(근로자 대표위원 최혁재)와 함께 대구 사랑의열매에 성금 8,000만 원을 기탁했다. 매달 임직원이 급여의 일부를 기부해 적립한 사랑나눔기금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매칭그랜트 기금을 더해 마련했다. 성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에너지 취약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에 사용했다.

인천

태웅I&M, 나눔명문기업 29호 가입

폴딩키, 스마트키, 스마트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유망 중소기업 태웅I&M이 인천 나눔명문기업 29호로 가입했다. 가입식에는 태웅I&M 정웅 이사, 이재현 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웅 이사는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입 성금은 인천 서구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디에스네트웍스(주),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 후원

디에스네트웍스(주)(대표 이규용)가 인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30호로 가입했다. 이번 가입은 디에스네트웍스(주)가 주거 취약 계층의 돌봄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진행했다. 성금 1억 원은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규용 대표는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게 돼 영광이며,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가수 홍자 팬클럽, 데뷔 10주년 기념 기부 이벤트

가수 홍자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며 팬클럽 '홍자시대'가 광주 사랑의열매에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500박스를 기탁했다. 생리대는 5개 구청의 추천을 받아 중위 소득 100% 이내의 여성 청소년에게 전달했다. 팬클럽 운영자는 "아티스트의 선한 마음에 동참하고자 회원들이 서로 마음을 모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세상의 따뜻함이 전해졌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아로마라이프 이승우 부사장, 겨울나기 이불 지원

(주)아로마라이프 이승우 부사장이 광주 사랑의열매에 600만 원 상당의 겨울 이불 100채를 전달했다. 이불은 우산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대상자에게 전달했다. 이승우 부사장은 광주 아너 126호 회원으로 그의 부친인 (주)아로마라이프 이학재 회장과 모친 메르시라이프 이광은 대표 역시 아너 회원이다. 이들은 패밀리 아너로서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공헌하고 있다.

대전

2022년 신청 사업 배분금 전달식 및 사업 수행 교육 실시

대전 사랑의열매가 지난 1월 12일 2022년 신청 사업 선정 기관에 3억 6,000만 원 상당의 배분금을 전달했다. 배분금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이후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약 20개 기관의 사업 수행 교육을 실시했다. 배분금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사회복지 현장의 긴급 상황 및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전충남지회, 이웃 돕기 성금 전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전충남지회(지회장 박영무)가 대전 사랑의열매에 이웃 돕기 성금 1,84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전충남지회 소속 회원사들이 마련한 것으로, 대전·충남·세종 지역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박영무 지회장은 "동참해주신 회원사에 감사를 전하며, 소중한 마음이 담긴 귀한 성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업, 울산 3500호 착한가게

울산 사랑의열매에 3,500번째 착한가게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남구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업(대표이사 이진형)이다. 더불업은 취약 계층에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며 나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주)동원개발, 에너지 나눔 성금 2억 원 쾌척

(주)동원개발(사장 장호익)이 '우리 울산 에너지 나눔캠페인' 지원금 2억 원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캠페인은 저소득 에너지 취약 계층의 혹서·혹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동원개발이 전달한 성금은 냉방기 및 난방용품 400대분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장호익 사장은 "추운 겨울 이웃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

기아 오토랜드 화성, 지역 복지사업 후원

기아 오토랜드 화성이 경기 사랑의열매에 성금 9,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으로 재단법인 밴드에 5,000만 원, 화성시나래울복지관에 4,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각각 청년 1인 가구 소액 융자 사업과 저소득 가구 김장 김치 지원에 사용했다. 기아 오토랜드 화성 이상호 총무팀 책임매니저는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동수원병원, 임직원 함께 마련한 사랑의 성금 전달

동수원병원(이사장 변영훈) 임직원 600명이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 1,110만 원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동수원병원은 2007년부터 매해 나눔에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기부 금액은 총 1억 7,200만 원이다. 이번 성금은 경기도 내 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변영훈 이사장은 "임직원과 함께 지역사회 이웃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킨텍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 컨벤션 센터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연탄 8,000여 장을 기부하고, 고양시 홍도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 킨텍스 조승문 부사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임직원이 함께 봉사에 임했다. 조승문 부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킨텍스는 이웃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상도일렉트릭(주), 파주시 월롱면에 쌀 지원

상도일렉트릭(주)(회장 박성대)이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파주시 월롱면 취약 계층을 위해 쌀을 구입·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상도일렉트릭(주)은 2020년에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연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박성대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지속적인 나눔을 약속했다.

강원

원주 지역 기업인 김주은·전영수 대표, 나눔리더 가입식

2022년 강원 사랑의열매 첫 나눔리더가 원주시에서 탄생해 지난 1월 5일 원주시청에서 가입식을 진행했다. 대우환경 김주은 대표와 주식회사 세기 전영수 대표가 그 주인공으로 각각 강원 나눔리더 65호, 67호에 이름을 올렸다. 김주은 대표는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고, 전영수 대표는 "나눔을 통해 온기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KCC 문막공장, 문막읍 주민 위한 성금 8,000만 원 기탁

KCC 문막공장(공장장 김태정)이 강원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8,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문막읍 경로당 및 저소득 가구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태정 공장장은 "코로나19와 만성적 빈곤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문막읍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CC 문막공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3억 5,0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충북

청주시의사회, 코로나19 성금 1,500만 원 전달

청주시의사회(회장 양승덕)가 충북 사랑의열매에 성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청주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가구에 지원했다. 양승덕 회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김없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희망얼굴특별전시회 추진위원회, 성금 기탁

희망얼굴특별전시회 추진위원회가 충북 사랑의열매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10월에 개최한 〈천개의 별〉 특별 전시회 참여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이다. 희망얼굴은 청주중학교 지선호 교장이 학생과 교사의 얼굴을 그려 응원을 전하면서 시작했는데,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시민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충남

(주)도원이엔씨 성우종 회장, 성금 4억 원 쾌척

(주)도원이엔씨 성우종 회장이 충남 사랑의열매에 희망2022나눔캠페인 성금 4억 원을 전달했다. 아너 회원인 성우종 회장의 현재까지 누적 기부 금액은 법인과 개인을 합해 30억 원 이상이다. 성우종 회장은 가족은 물론, 도내 많은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홍보하는 등 충남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농어촌 초등학교 그린스마트 교실 지원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이 충청남도 주산초등학교에 그린스마트 스쿨 2호점을 오픈했다. 그린스마트 교실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최첨단·친환경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영상 수업용 대형 모니터 및 노트북 등 스마트 기기 설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리모델링으로 지역 아동에게 친환경 디지털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전북

(주)엔아이티, 나눔명문기업 가입

(주)엔아이티가 전북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주)엔아이티는 공해 없는 생활환경을 구현함으로써 환경오염 걱정 없는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 완벽한 설계와 시공을 갖춘 소각 전문 업체로, 이번 가입을 통해 3년간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주)엔아이티 김주한, 이강욱 대표는 "지역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설 명절 생필품 선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설맞이 이웃사랑 선물 꾸러미를 전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떡국·라면 등 10종의 생필품으로 구성했으며, 4,0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1,600상자는 전북은행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해 정성을 더했다. 선물은 도내 각 시군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전남

삼영산업(주) 고춘석 회장, 아너 가입으로 나눔 실천

석재물류센터 삼영산업(주) 고춘석 회장이 전남 129호이자 무안 2호 아너로 가입했다. 가입 성금 1억 원은 전라남도 내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 저소득 세대를 위한 복지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2010년 성암문화재단을 설립한 이후,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고춘석 회장은 "고향인 무안군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 기쁘다"고 말했다.

2022 신청 사업비 6억 8,154만 원 배분

전남 사랑의열매가 2022년 신청 사업에 선정된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42개소에 6억 8,154만 원의 사업비를 전달했다. 사업비는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와 노후 장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비로 사용한다.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향상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

한국수력원자력, 스마트 체험관 배분 차량 전달식

2021년 12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시에 '찾아가는 상상버스 스마트 체험관' 차량을 전달했다. 찾아가는 상상버스 스마트 체험관은 가상현실 보조 기기 22종을 설치해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을 찾아가 최신 보조 기기를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장애인에겐 정보 통신 기술(ICT)을 이용한 장애 체험을 제공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북 지역 여성 단체, 희망나눔캠페인 동참

희망2022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경북 지역 여성 단체의 나눔이 이어졌다. 경북새살림봉사회가 100만 원, 경북능금회가 100만 원, 경북여성단체협의회가 500만 원, 경북회가 250만 원을 기탁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경북 사랑의열매 전우헌 회장은 "여성 단체의 기부 활동이 두드러졌다"며 "앞으로도 여성 단체가 활발하게 활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

정상민 원장, 2022년 첫 경남 아너 가입

서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정상민 대표원장이 지난 1월 3일 경남 141호이자 김해 12호 아너로 가입하며 2022년 경남 사랑의열매 첫 번째 아너 회원이 됐다. 김해에서는 1년 만에 탄생한 아너 회원이다. 2018년 가입한 아너 회원의 권유로 가입을 결심한 정상민 대표원장은 "작은 나눔이 모여 큰 희망이 된다고 믿는다"며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아타이거즈 나성범 선수와 팬클럽, 야구 꿈나무 지원

기아타이거즈 나성범 선수가 팬클럽과 함께 경남 사랑의열매에 야구 꿈나무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형편이 좋지 않아 야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250만 원씩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나성범 선수와 팬클럽은 5년째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나성범 선수는 "한결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나눌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전했다.

제주

제주도, 2021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포상금 전액 기부

제주도가 성금 3,000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성금은 제주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받은 포상금 전액이다. 제주도는 수상의 영예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기부를 결정했으며, 이번 성금은 도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주)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성금 전달

서귀포시 신화월드 내 위치한 (주)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이 제주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5,000만 원을 전달하며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성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지역사회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서귀포시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세종

타이어뱅크, 새해 첫 세종 나눔명문기업

세종 사랑의열매에 임인년 새해 첫 나눔명문기업이 탄생했다. 어진동에 위치한 타이어뱅크(주)(회장 김정규)가 1억 원 기부를 약정하며 세종 나눔명문기업 5호로 가입했다. 타이어뱅크(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선 5,000만 원을 기탁해 형편이 어려운 아동 280여 명에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불과 전기장판 등을 지원했다.

2022 신청 사업 선정 기관에 2억 3,448만 원 배분

세종 사랑의열매가 2022년 신청 사업 배분금 2억 3,448만 원을 선정 기관 12개소에 전달했다. 2022년 신청 사업은 올 1월부터 1년간 진행하며,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다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 환경 변화에 적극 개입해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중앙 353호

이지원 SBS 프로듀서
"넉넉하기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에 넉넉합니다."

중앙 354호

최정숙
"나눔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중앙 355호

강신문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 저의 나눔이 우리 사회의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길 바랍니다."

중앙 356호

양희은 가수
"보호종료 여성들을 위한 기본적인 성과 돈 관리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서울 340호

이승주 부국증권 인수금융부 이사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서울 344호

박용우 이라의료재단 이사장
"나눔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서울 345호

전대석 (주)글로벌대명 대표
"나눔으로 소외 계층에게 도움을 주며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서울 346호

김종연 신흥CNC건설 대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서울 347호

김현식 공인회계사
"모두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서울 348호

정형주 (주)게임박스 대표
"고액 기부는 저한테 두렵고 설레고 감사했습니다. 나누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서울 349호

한대현 (주)대경바스컴 대표이사 회장
"나눌 수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사회 동반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350호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진실한 나눔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산 239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주) 회장
"나눔은 사랑입니다."

부산 240호

정종원 (주)건양산업 대표이사
"나눔에 대한 감사와 습관이 나눔을 키웁니다."

부산 241호

임미정 창창아이씨티 SK한백대리점 대표이사 "주먹 쥔 손보다 편 손이 아름답습니다."

부산 242호

한윤상
"나눔이란? 내 것의 반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부산 243호

이상훈 동광무역상사(주) 회장
"나눔은 공존의 씨앗입니다. 잘 가꾼 사랑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부산 244호

유시진 에스제이이(주) 대표이사
"나눔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동정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아직 공감할 수 있을 때입니다."

부산 245호

정주현 (주)제이에이치라이팅 대표이사 "나눔이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작은 선행입니다."

부산 246호

이수진 액트로닉스 실장
"나눔이란 누군가에게 마음속 행복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부산 247호

박규현 (주)진영코리아 대표이사
"나눔은 아침에 떠오르는 따뜻한 햇살 같은 것이 아닐까요?"

부산 248호

심상균 (주)에스피시스템스 회장
"나누면 참 좋습니다."

대구 194호

노기원 (주)태왕 대표이사 회장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 160호

박종윤 (주)제이와이 대표이사
"나의 작은 나눔 불씨가 인천 지역에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인천 162호

김원학 (주)새샘개발 회장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광주 127호

선영래 (주)상무프랜차이즈 대표이사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온정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광주 128호

박기원 북구미래아동병원 원장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129호

서대석 효치과 원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광주 130호

허영숙 LG전자전문점(주)바람꽃 대표이사 "가장 소망하고 꿈꾸던 이웃과의 나눔을 약속하는 이 자리가 더없이 행복합니다."

광주 131호

김길표 쌍교숯불갈비 부대표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주 132호

손정임
"남편과 함께 광주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울산 106호

정연태 (주)화신개발 대표이사
"기부와 나눔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빛나는 나눔, 함께하겠습니다."

울산 108호

박순영 굿모닝관광호텔 이사
"더불어 사는 삶, 행복한 동행."

울산 109호

김진규 (주)케이엔 회장
"작은 나눔들이 모여 이웃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울산 110호

박병준 대원그룹 총괄사장
"나눔은 행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경기 272호

김창길 (주)금강궈츠 대표이사
"이웃을 돕는 것은 즐겁고 행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경기 273호

김병관 대한민국 국회의장 비서실장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경기 275호

김영태 (주)아로마솔루션 대표이사
"소유보다는 베풂의 행복을…."

경기 276호

최태성 별별한국사 대표강사
"나눔은 나의 시간과 나의 자산을 '일부러'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경기 277호

남상일 피자헛 안산성포점 점주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희망이 더 커지는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경기 279호

박병용
"저의 작은 손이 어떤 분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92호

이득길 (주)베이커리가루 대표
"앞으로는 시민에게 받은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나눔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충북 6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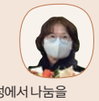
이동채 (주)에코프로 대표이사 회장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꿈과 희망."

충남 108호

서성강 사진작가
"미래를 향해 꿈을 펼쳐야 할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나눔에 참여했습니다."

전북 79호

조정희
"우리 부부의 기부가 평범한 사람이 아끼고 절약해 기부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남 131호

이재안 "고향인 곡성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더욱 기쁘고,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북 130호

이은주
"우리 아이들이 부모 삶을 본받아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경북 132호

김정진 바른유병원 원장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힘든 이웃을 보듬어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경북 135호

김정희 (주)정우주택건설 회장
"저의 작은 나눔을 통해 지역이 더욱 발전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남 141호

정상민 서울마취통증의학과의원 대표원장 "지역사회 의료 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142호

이영식 (주)정우콘크리트 대표이사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 126호

이창현 세무사이창현사무소 대표
"나눔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샘솟게 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마중물입니다."

제주 127호

김강일 법무사김강일사무소 대표
"나눔은 리턴(return)입니다."

중앙 장덕현 삼성전기(주) 사장 경기 염정환, 김경숙 인천 추신수 SSG랜더스 선수
광주 김수영 가평의료재단 이사장

당신의 눈썰미는 몇 점?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호'

모두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우리 일상은 이전과 같지 않지만, 그래도 용맹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사랑의열매는 2022년에도 모아주신 사랑으로 우리 사회 곳곳을 지키는 '사회백신'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뜨거운 사랑과 관심, 그리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른곳은 총 다섯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만화로 보는 희망2022나눔캠페인

글·그림 **오동진**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 호 독자 의견

1997년생 젊은 농부인 장현 대표가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햅쌀을 두 해째 1톤이나 기부하는 내용을 읽고 금전만이 아닌 자신이 지닌 재능도 기부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젊은이가 조부, 부친과 함께 3대째 벼농사를 지으며 농부의 길을 가는 것도 대견스럽네요.
– 최명연, 대구시 달서구

쓸쓸히 혼자 세상을 떠나시는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무연고자의 사회적 장례 지원에 지정기부를 하시면서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이영두 이사장님. 이런 소망처럼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가 꿈꾸는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 조건희, 경기도 부천시

신년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봅니다'를 읽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은 물론, 돌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과 종사자까지 자상하게 돌봐주며 복지의 빈틈을 잘 메우고 있음을 실감 나게 해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부산시 북구

알립니다

매달 이메일로 의견을 듣던 독자 참여 방식에서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SNS 참여 방식으로 바뀝니다.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 또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등을 SNS에 해시태그 #사랑의열매와 함께 업로드해주시면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 이야기를 〈사랑의열매〉에 들려주세요.

참여 방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작성한 후 해시태그 #사랑의열매 달아주면 완료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열매둥이 인형

휴대용 장바구니

안마봉

<사랑의열매>를 웹진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매거진이 웹진으로도 발행됩니다.

사랑의열매 웹진 nanumnews.or.kr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로 나아갑니다.

사랑의열매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낡은 곳을 보수하거나 쪽방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왔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우리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